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생활과학박사 학위논문

# 금융소비자의
# 재무불안에 대한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이해랑

# 금융소비자의
# 재무불안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나 종 연

이 논문을 소비자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이 해 랑

이해랑의 소비자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금융소비자들은 급변하는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대형화, 통합화,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증가시켰다. 또한 2000년대 초반 금융선진화는 고위험 고수익의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들 접근성을 증가시킨 반면, 상품 선택 후 손실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의 생활의 질, 업무 및 학업 만족도, 대인관계, 일상생활, 재무행동 건전성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모지기, 소득불안정성 등이 금융소비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변화, 주식 시장 호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투기성 투자 행위에 대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실업, 공유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자산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이 모든 배경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불안이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의사결정과 관련되어 구매 후 해소되는 것인 반면, 재무불안은 구매 후에도 지속된다. 재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재무자원 배분 전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금융소비자가 생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무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기때문에 재무자원에 대한 불확실성

은 금융소비자의 전반적인 재무자원 배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재무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며 급속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재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무불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재무불안에 대한 연구는 재무불안의 병리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인이 처한 환경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불안은 단순하게 개인의 특성으로만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불안은 개인이 처한 내외적인 조건이나 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다. 또한 불안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건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기존의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재무불안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재무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재무불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재무불안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무불안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의 보편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수준을 살펴보며,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유형화하여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재무불안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재무불안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재무불안의 하위차원을 구분하였다. 이후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1,0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통한 재무불안 하위차원 검증, 기술 통계 및 분산 분석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수준을 진단,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 군집분석을 통한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화,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 등을 통한 재무불안 유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불안은 다양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재무불안을 살펴볼 때 금융소비자가 처한 환경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재무불안을 개인의 재무관리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 재무불안은 개인의 재무자원의 측면과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의 개념임이 드러났다. 재무불안은 재무자원 불안, 부채 불안, 거시 환경변화 불안, 개인 상황변화 불안의 4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가 지닌 재무자원과 개인이 처한 환경으로 구성된 다차원의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재무불안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무불안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때 금융소비자의 환경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금융소비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태도, 비교 성향 등의 심리적 요인이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검증되었다.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무불안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

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교 성향은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불안이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재무불안은 재무관리 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요인이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과도한 재무불안 완화를 위한 교육이나 대처 방안 제시 시, 심리적 요인의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을 분류한 결과 각 집단에 따라 재무불안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을 위해서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재무불안에 따라 금융소비자 유형을 분류한 결과 저불안 집단, 평균 불안 집단, 소득자산 불안 집단, 고불안 집단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은 인구통계학적인 기준으로 금융소비자를 분류했을 때와는 다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집단의 재무불안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재무불안으로 인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적합한 재무불안 관리 방법이나 재무문제 해결 방법 제시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지닌 재무 자원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개인의 주관적인 요인이라면, 재무자원은 재무불안과 관련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 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의 월소득수준, 신용부채 규모, 금융상품 보유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집

단이 지닌 재무자원은 각 집단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재무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재무불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지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재무자원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부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소득자산 불안 집단은 소득 수준도 낮고, 부채 수준도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 집단은 부채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금융시장에서의 부채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거나 자신의 월소득으로 재무 자원을 축적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없이 현재의 소비지출에만 집중해야 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벗어나는 부채는 재무적 불안의 요인이지만, 부채 보유를 통해 전 생애를 걸쳐 개인의 재무자원 배분을 하여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시키고, 부채를 재무 자원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무설계 및 재무관리 교육이나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여섯째,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반응으로 금융소비들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불안의 적정 수준 조절이 중요하다. 재무치료와 재무설계의 측면에서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유형에 따라 재무불안의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집단 간 재무관리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무관리행동 하위차원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부채관리 행동이나 위험관리행동의 경우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재무관리 행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무불안의 하위차원과 금융소비자들의 심리적 요인

및 재무 자원의 수준에 따라서 각자 느끼는 불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특성에 따라 재무불안의 수준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이나 재무불안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재무불안을 더욱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불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기 변동을 고려하여 재무불안 수준이 지속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무불안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를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무불안과 재무관리 행동의 발생 시점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재무자원으로써 부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부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과도한 재무불안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재무관리 능력의 측면에서 단일차원의 개념이며 병리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던 재무불안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금융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다차원으로 구성된 재무불안 항목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현재 재무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를 재무불안에 따라 유형화하여 각 재무불안 유형 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처나 진단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재무불안, 금융소비자, 소비자유형화, 미래에 대한 태도, 비교 성향**

**학 번 :** 2013-30487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9
제 1 절 재무불안의 개념 ····· 9
1. 불안의 개념 ····· 9
1) 다양한 학문에서의 불안 ····· 9
2) 소비자학적 맥락에서의 불안 ····· 13
2. 재무불안의 개념 ····· 16

제 2 절 재무불안의 측정과 관련 요인 ····· 22
1. 재무불안의 측정 ····· 22
1) 불안의 측정 ····· 22
2) 재무불안의 측정 ····· 26
2. 재무불안 관련 요인 ····· 30
1)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0
2) 재무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7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41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41

제 2 절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 43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43
2. 조사대상자 특성 ····· 44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47
1) 재무 지식 ····· 47

2) 재무 자원 ····· 49
3) 심리적 요인 ····· 50
4) 재무관리행동 ····· 51

**제 4 장 연구결과 ····· 54**
**제 1 절 재무불안의 하위차원과 현황 진단 ····· 54**
1. 재무불안 하위차원 도출 및 측정 도구 구성 ····· 54
1) 재무불안 하위차원 도출 ····· 54
2) 재무불안의 개념 및 측정 도구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 58
2. 소비자 재무불안 수준 진단 ····· 67

**제 2 절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4**

**제 3 절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화 ····· 80**
1.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 분류 ····· 80
2. 금융소비자 유형별 소비자 특성 차이 ····· 83
3. 금융소비자 유형별 재무관리행동 차이 ····· 9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94**
**제 1 절 요약 및 결론 ····· 94**

**제 2 절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 99**

**참고문헌 ····· 102**
**부록. 설문지 ····· 122**

# 표 목 차

[표 2-1] Capelli(2005)의 소비자불안 척도 및 하위 차원 ····· 26
[표 2-2] 재무불안 척도 ····· 29
[표 2-3]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2
[표 2-4]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6
[표 2-5] 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8
[표 2-6] 재무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0
[표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46
[표 3-2] 객관적 재무지식의 측정 문항 ····· 48
[표 3-3] 주관적 재무지식의 측정 문항 ····· 49
[표 3-4] 재무 자원의 측정 문항 ····· 50
[표 3-5] 심리적 요인의 측정 문항 ····· 51
[표 3-6] 재무관리행동의 측정 문항 ····· 53
[표 4-1] 재무불안에 대한 KMO와 Bartlett 검정 ····· 60
[표 4-2] 재무불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 62
[표 4-3] 재무불안에 대한 최대우도모수 추정치 ····· 64
[표 4-4] 재무불안에 대한 수렴타당성 검증 ····· 65
[표 4-5] 재무불안에 요인별 판별타당도 ····· 66
[표 4-6] 재무불안의 전반적인 수준 ····· 68
[표 4-7] 재무불안 하위차원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 70
[표 4-8] 재무불안 하위차원별 재무 자원 특성 ····· 73
[표 4-9]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9
[표 4-10] 재무불안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류 ····· 82
[표 4-11] 금융소비자 재무불안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징 차이 85
[표 4-12] 금융소비자 재무불안 유형별 재무 지식 차이 ····· 86
[표 4-13] 금융소비자 재무불안 유형별 재무 자원 차이 ····· 88
[표 4-14] 금융소비자 재무불안 유형별 심리적 요인 차이 ····· 89
[표 4-15] 금융소비자 금융상품 보유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 ····· 90

[표 4-16] 금융상품 보유별 재무불안 수준 차이 ····· 91
[표 4-17] 금융소비자 재누불안 유형별 재무관리행동차이 ····· 93

# 그 림 목 차

[그림 4-1]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재무불안 하위차원 ····· 57
[그림 4-2] 재무불안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 63
[그림 4-3]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 ····· 67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제기

소비자들이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상품은 금융상품이다. 금융상품은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 재화는 탐색 특질이나 경험 특질을 주로 가지고 있다. 탐색 특질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속성이고, 경험 특질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인 구매 후에 판단할 수 있는 특질이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경우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한 후에도 평가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금융상품이 일반 재화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금융상품은 무형성(Intangibility), 복잡성(Complexity)과 장기성(Longevity)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또한 거래의 결과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이 되고, 상품의 따라 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가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장연주, 2013; 구혜경 외, 2013). 따라서 자신의 재무자원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무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늘 지니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불안감을 경험해 왔다(McCormick, 2009, Geller, 2013). 금융 시장의 성장과 변화, 기술의 발달로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대형화, 통합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금융상품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불안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증대도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의 경우 일부 전문 투자자나 기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 대 초반 금융선진화 이후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근하기가 쉬워

졌다(김은정, 2013).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과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의 효용, 즉 이익과 손실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증대시켜 왔다.

금융 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안 증가는 금융소비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Jenkins et al, 20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들은 다양한 재무적 요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모기지, 소득불안정성 등이 금융소비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Burchell. 2002; Shapiro & Burchell(2012)에서 재인용). 또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의 생활의 질, 업무 및 학업 만족도, 대인관계, 일상생활, 재무행동 건전성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Joo et al, 2008; Northern et al, 2010, Klontz et al., 2011; Jenkins et al, 2013; Sage et al, 2013; Heo, Cho & Lee, 2020). 이러한 연구들이 바탕이 되어 미국 심리학회는 미국 국민의 스트레스 조사 백서에 2015년부터 매년 재무불안을 측정하고, 이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자살 동기는 1위가 정신과적 문제(34.7%)이고, 2위가 경제생활문제(26.7%)였다.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살을 시도한 동기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38.2%로 가장 높았다.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03년 카드대란 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기점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경제생활 문제를 재무불안과 완전하게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요인이 사람들의 정신 및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무불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문의 영역에 따라 재무불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개념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재무불안은 개인의 재무 자원 및 상황에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들이 느끼는 불안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재무불안이 금융상품이 지닌 특징처럼 일반적인 소비자 불안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불안이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의사결정과 관련되어 구매 후 해소되는 것인 반면, 재무불안은 금융상품 구매 후에도 지속된다. 또한 재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전반적인 재무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반 재화 구매는 개인의 전반적인 재무 자원 배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는 생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무 자원을 전 생애에 걸쳐 배분하고자 하기 때문에 재무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금융소비자의 재무자원 배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소비자는 생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득을 기간별로 배분하고자 하며, 이때 이용되는 수단이 바로 금융상품이다(최철, 2013).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출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재무자원을 배분하기도 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의 재무행동 건전성,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재무불안이 높은 사람이 재무행동 건정성이 낮고,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oll et al., 2016).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의 재무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의 행동 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몇 년 간 부동산 정책 변화, 주식 시장 호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행동이 발생했다(김영대, 2017; 이동준, 한창근, 2021; 오지민, 김태민, 2021; 임상빈, 2022). 이러한 투기성 투자 행위에 대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실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자산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이 모든 배경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김명수, 2022). 반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금리가 오르자 많은 사람들은 대출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증가하여 투자 규모와 지출 규모를 줄여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무 자원 배분 및 재무관리행동을 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재무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며 급속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재무불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재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무불안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재무불안에 대한 연구는 재무불안의 병리학적 특성에 주목해 왔으며 개인이 처한 환경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CFPB, 2020; Hartley & Phelps, 2012). 그러나 불안은 단순하게 개인의 특성으로만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불안은 개인이 처한 내외적인 조건이나 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다. 불안은 개인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하여 발생되기도 하고, 개인이 직면한 상황과 개인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Girad, 2020). 철학과 소비자학에서 불안은 삶을 살아가는 주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과도한 불안은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료의 대상이지만 적정 수준의 불안은 개인의 욕망을 들어다 볼 수 있는 요인이며, 위험에 대비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동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Freud, 1926; 정달용, 2001에서 재인용; 맹정현, 2009; 류호인, 2020). 소비자의 불안을 연구한 Taylor(1974)는 불안의 특성을 보편적이고, 평범하며, 두려움과는 차이가 있고, 건설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무불안을 병리적 현상으로만 살펴보고,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구조 자체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금융시장 및 경제주체의 변화 역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불안은 재무자원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경험한다. 최근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재무스트레스나 불안은 금융소비자가 관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적인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적 측면에서 개인이 재무상황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을 측정한 것은 좋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고려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의 요소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차원의 재무불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생활 환경에서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양한 학문에서 심리적인 요인과 그 중 불안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반면, 소비자학의 측면에서 현재 재무불안은 그 개념의 범위도 한정적이고, 측정 역시 단일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의사결정, 재무관리행동 건전성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재무불안이 현재 금융소비자들의 다양한 재무불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의 현재 재무불안 수준,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불안을 금융소비자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의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유형화하여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재무불안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문헌고찰과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재무불안의 다양한 하위차원을 구성한다. 구성된 재무불안 하위차원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 수준을 진단한다. 둘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융소비자의 인구통계적 요인, 재무지식, 재무자원,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의 재무불안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재무 지식, 재무 자원, 심리적 요인, 재무관리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재무관리 능력의 측면에서 병리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던 재무불안을 금융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살펴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불안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반응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에 반응하여 투자나 대출상환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불안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오고, 병리적인 재무행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불안을 금융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으로 보고 재무불안을 일반 금융소비자의 재무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장하여 접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재무불안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살펴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재무불안은 병리학적인 현상인 동시에 소비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단일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안은 개인의 내부에 귀인하는 개인적인 자원이나 능력에 관한 부분은 물론, 개인이 불안을 느끼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불안을 살펴보면 개인의 자산 규모나 관리 능력에 대한 불안 외에도 자신들의 재무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금리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재무불안이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의 개념임을 밝히고, 재무불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 본 연구의 두 번 째 의의가 있다

셋째, 다차원으로 구성된 재무불안 항목으로 현재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수준을 살펴보고 진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의 심리는 거시지표로서 소비자 기대심리 등을 보아왔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금리 인상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재무불안의 수준을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세부적으로는 어떠한 불안을 어떠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는 지 세부적인 재무불안의 항목과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의 방향과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넷째, 재무불안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재무불안에 대한 대처 행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언제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불안이 발생했을 때 불안 관리를 위한 대처 행동은 필요하다. 불안에 대한 대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안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응해야 불안을 관리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근거한 교육적, 정챙적 함의나 대처행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기반이 되고자 한다.

다섯째, 금융소비자를 재무불안에 따라 유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유형별 재무불안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인구통계학적인 요

인으로 단순하게 금융소비자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의 문제나 해결책을 찾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 재무불안의 유형별로 특징을 찾아내면 그 집단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화를 통해 각 재무불안 유형 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처나 진단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제 1 절 재무불안의 개념

본 절에서는 다양한 학문 및 소비자학에서 정의하는 불안을 살펴본 후, 재무불안의 개념을 살펴본다.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어 온 불안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재무불안의 개념이 지닌 의미와 한계를 찾아보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재무불안의 개념적 정의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1. 불안의 개념

#### 1) 다양한 학문에서의 불안

불안(Anxiety)은 철학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학자들이 연구해 온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다. 불안은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 즉,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상태라고 정의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따라서 불안이라는 기분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철학에서 연구되어 온 불안은 인간이라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서로써 불안을 억제하기 보다는 불안을 수용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불안에 대하여 최초로 철학적으로 체계적 의미를 부여한 학자는 키에르케고르이다(손창선, 2016).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정리한다(손창선, 2016; 홍준기, 2001). 하이데거는 역시 불안은 익숙한 일상과 삶으로부터 한 개인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인간이라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

정으로 정의했다(공병혜, 2014). 마르셀 역시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으로 인간에게 불안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정달용, 2001). 마르셀은 인간의 삶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에 대한 개인의 변화를 기준으로 긍정적 불안과 부정적 불안을 분류하였다. 불안을 느낀 개인이 불안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수용하고 가능성을 여는 불안은 긍정적 불안, 반대로 불안을 통해 삶의 절망감이 깊어지는 경우는 부정적 불안으로 분류하였다.

철학 분야에서 인간의 존재와 관련하여 불안을 연구해 왔다면, 심리학 및 사회학에서는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불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Spielberger(1972)의 연구이다. Spielberger(1972)는 불안을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일련 과정으로 관찰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불안이 개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른 불안과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하여 경험하는 불안을 모두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각각 특성 불안(Trait anxiety)과 상태 불안(State anxiety)으로 명명된다. 특성 불안은 개인의 기질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평소에 느끼는 불쾌감, 긴장, 신경과민, 근심, 걱정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비교적 변화가 없으며 변화시키기도 어렵다. 상태불안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정서 상태로 걱정이나 염려가 의식적으로 지각되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Spielberger(1972)의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특히 내가 아닌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된다(Schlenker & Leary, 1982,; 양윤란, 양재원, & 오경자, 2008; America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Schlenker & Leary(1982)는 이 사회적 불안을 실제 또는 가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적 평가를 예견함으로써 생기는 인지적, 정서적 경험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상황은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상황을 의미힌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불안의 주체가 타인

의 반응이 자신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교호적(contingent) 상황, 비교호적(noncontingent)상황으로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Schienker & Leary, 1962). 일대일로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은 교호적(contingent) 상황, 청중과 강사와 같이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반응은 개인의 행동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비교호적(noncontingent)상황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불안에서 살펴볼 부분은 인간은 실제 경험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개인이 상상하는 가상의 상황에서의 대인적 평가까지도 예견을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느끼는 불안은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은 물론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교육학에서는 심리학에서의 불안 개념 및 척도를 기반으로 교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불안이 실험 불안(Test Anxiety)이다. 시험불안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상황, 즉 시험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생리적 반응이다(Hodapp & Benson, 1997; Cassady & Johnso, 2002). 시험 불안은 개인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결부하여 시험 결과를 생각하여 발생하는 반응도 포함이 된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발생하지 않은 시험 결과에 대하여 불안의 주체가 상상하고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적 불안도 시험 불안도 그 개념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불안을 느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사회적 불안이 개인적 측면에서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불안의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개인이 처한 사회의 각종 문제 및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나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및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고, 그 대상이 기존의 사회적 불안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 대상이 매우 거시적이다. 이때의 사회적 불안의 개념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협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사회의 실존에 대한 위협이

란 사회의 존속, 유지, 발전 등이 위험하거나 위협당하고 있다는 느낌, 인식 및 지각을 의미한다(박수애 & 송관재, 2005; Twenge, 2000). 개인이 관계에서 인지하는 불안 외의 이러한 사회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인지하게 되는 불안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불안이 사람들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박수애 & 송관재, 2005).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불안의 하위차원은 정치, 경제, 북한, 노사, 교육, 빈부격차 등으로 구성되었다(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 이재창, 2006; 박수애 & 송관재, 2005),

이렇듯 불안은 불안을 느끼는 주체의 기질적 특성과 상황이 함께 연구되어 왔고, 최근에는 그 범위가 거시적인 차원의 환경까지도 확대되어 왔다. 불안을 느끼는 개인의 특성과 개인을 둘러싼 개인적, 거시적 환경에 대한 불안 연구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기술불안(Technology Anxiety)은 컴퓨터불안으로부터 대두된 불안이다. 컴퓨터불안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사용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우려, 기대로 정의된다(Igbaria & Parasuraman, 1989; Scott & Rockwell, 1997; Guo, Sun, Wang, Peng & Yan, 2013). Meuter, Ostrom, Bitner & Roundtree(2003)는 기존의 기술 불안이 기술 및 기술 관련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마음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기술불안이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이나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Yang & Forney(2013)는 이러한 지적을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술 불안에 적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비자 불안이 더욱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모바일에서의 소비자의 기술불안은 거래 실패에 대한 책임의 모호성, 순간적인 기기 조작에 따른 재무적 거래 손실,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과 같은 거래 환경적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술 불안을 정리해보면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근심이나 두려움, 위험의 총체이며, 낯선 기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소비자가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기술 사용 능력에 대한 불안을 모두 포괄하

는 개념이다.

철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어 온 불안의 개념을 살펴보면, 불안은 개인이 타고난 기질과 관련한 불안, 개인이 통제가 가능한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대한 불안, 그리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불안이 함께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소비자학적 맥락에서의 불안

각 학문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불안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소비자학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소비자 불안 연구는 소비자행동이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소비자불안은 행동이론 내 Fischer(1970)의 선택에 대한 연구와 Bauer(1960)의 위험에 대한 인식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Fischer(1970)는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선택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선택은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미래에 도달해야만 알 수 있다. Bauer(1960)는 선택의 상황을 마주한 소비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고, 이 때 소비자가 느끼는 위험 인식을 이야기하였다.

소비자와 불안을 연계하여 살펴본 최초의 연구자는 Taylor(1974)이다. 소비자행동이론에서 그는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위험과 불안 사이의 구체적인 구조를 밝히고자 했다. Taylor(1974)는 소비자 불안을 상품 선택과 구매라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했다. 소비자는 선택의 상황에서 소비자는 언제나 두 가지 위험에 놓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선택에 따른 성과(outcome)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선택의 결과(consequence)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전자에 대하여 소비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선택을 미루거나 선택으로 얻는 이익의 양을 감소시킴으

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Taylor, 1974). 소비자행동이론의 측면에서 소비자불안을 소비자의 선택과정에서 인지된 위험과 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반응으로 이 때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Taylor(1974)는 연구에서 불안의 특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불안의 특성을 보편적이고, 평범하며, 두려움과는 차이가 있고, 건설적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불안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가벼운 형태로 경험을 하는 현상이다. 인간은 불안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학습하고, 긴장에 대한 인간의 내성을 확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안은 인간의 성장을 돕는 건설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Fromm-Reichmann, 1955; Taylor, 1974에서 재인용; Fischer, 1970). 이러한 불안의 특징은 소비자가 구매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에도 적용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 소비자불안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불안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위험이나 불확실성, 통제불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소비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불안은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한 시점부터 누적되는 시간성을 포함한다는 특징을 지닌다(김길홍 외, 2017; Yu et al., 2019; 사지연, 여정성, 2014). Sego & Stout(1994)에 따르면 불안은 한순간의 마음 상태가 아니다. 불안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시점부터 꾸준하게 누적되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감정이다. 소비자행동이론 측면에서의 소비자불안 개념은 소비자의 구매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소비자학의 측면에서는 소비자불안의 특성에 누적된 시간성을 포함하면서 소비자의 소비생활 전반, 구매 전 과정으로 소비자불안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소비자불안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소비 품목에 따라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품목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불안이 각 소비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소비자불안 개념을 살펴보았다.

식품은 인간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소비 품목이다. 식품이 지닌 위

험은 소비자들의 식생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소비자들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소비자들이 식품 위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때의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의된다(Jackson, 2010; Hansen, Mukherjee & Thomsen, 2011; 사지연, 여정성 2014; 이승신, 2016; 최경숙, 김지은, 2020).

생활화학가정용품과 관련한 위험 역시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화학 물질과 관련한 이 영역은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이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와는 달리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Sah et al., 2012).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화학제품을 의미한다(김길홍, 유현정, 2016). 생활화학가정용품과 관련한 소비자불안은 생활화학가정용품 선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주관적 긴장, 위험, 염려 등으로 문제를 인식한 시점부터 측정까지의 누적된 감정이다(김길홍 외, 2017; 김길홍 & 유현정, 2018).

금융 상품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 통제불가능성 등의 이유로 소비자학에서 금융에 대한 소비자불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Yu et al.(2019)은 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불안을 불완전판매나 금융 기관의 사기, 기만과 같은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한지형(2019)은 금융 불안 중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 불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모바일 재무불안을 금융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근심, 두려움, 위협감 등의 감정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바일 재무불안은 모바일 기술 환경 자체에 대한 불안과 모바일기술을 사용하는 본인의 선택이나 능력에 대한 불안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소비자학에서는 소비자불안은 소비자행동이론으로부터 발전하여 소비 품목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각 소비 품목에 따라 소비자불안의 개념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소비자불안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소비자가 인지하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누적된 감정을 의미하고 있다.

### 2. 재무불안의 개념

재무불안은 재무설계 및 재무치료 분야와 미시경제학 및 행동경제학에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재무설계 및 재무치료 분야에서는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병리학적인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시경제학 및 행동경제학에서는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최근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재무치료(Financial Therapy),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 분야에서 재무불안은 주목을 받는 연구 주제이다. 해외에서는 재무불안이 재무치료 및 재무설계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Archuleta et al., 2012; Archuleta et al., 2013; Archuleta et al., 2020).

재무설계와 재무치료 분야에서의 재무불안은 개인의 재무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Archulet, 2013; Shapiro & Burchell, 2012). 재무불안은 개인의 재무 상황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 또는 개인의 재무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의 어려움과 불쾌함(uneasiness)을 의미한다(Archuleta et al., 2013; Shapiro & Burchell, 2012; Vosylis, & Erentaitė, 2020). 또한 부정적인 재무적 자극에 대하여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Shapiro & Burchell, 2012; O'Neill, Prawitz, Sorhaindo, Kim & Garman, 2006). 재무불안은 개인이 자신의 재무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심리사회적 증상을 의미한다(Burchell, 2003; Shapiro & Burchell, 2012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Sapiro & Burchell(2012)와 Archuleta et al.(2013)이 개발한 재무불안 척도가 다양한 연구에서 이용

되고 있으며, 재무관리 및 재무치료 이외의 학문에서도 이를 토대로 재무불안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무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관리와 재무치료의 측면에서 재무불안은 재무행동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Roll, Taylor & Grinstein-Weiss 2016; Sages et al., 2013; Klontz & Klontz, 2009).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재무불안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행동의 개선이 필요한 병리적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개인의 재무관리 능력 및 의지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재무관리와 재무치료 측면의 재무불안의 개념과 함께 우리는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재무불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McCormick, 2009, Geller, 2013). 금융소비자가 구매한 금융상품의 기대 이익과 선택의 결과는 금융시장의 주체들의 활동에 따라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금융시장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금융상품 이익실현은 영향을 받는다. 금융관련 정책의 변경, 거시 경제적인 요인이 금융 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Shiller, 1996; Kim, 2010).

개인의 재무관리 능력이나 의지를 벗어나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재무불안의 개념으로는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재무불안을 포괄하기 어렵다. 각 분야에서 불안이 초기에는 불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지와 능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불안을 느끼는 환경이나 맥락에서의 불안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Yang & Forney, 2013; Meuter et al, 2003; 고효진 외, 2006; 홍영오 외, 2006). 따라서 우리는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 전반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심리적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가 처한 환경과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행동을 살펴보는 행동 경제학 및 미시 경제학에서 재무불안은 재무관리와 재무치료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에 비해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재무행동에서 살펴보는 재무불안은 개인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재정 상황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Marjanovic et al., 2013; Fiksenbaum, Marjanmovic, Greenglass, 2017). Jones & Heffner(2022)의 경우에는 재무불안에 과거의 요인도 포함시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재무불안은 과거의 재무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과 이를 반영한 현재의 재무적 불안감, 그리고 미래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재무불안은 공통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시점에서의 재무적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인 불안을 의미하며, 시간과 불확실성에 집중하고 있다.

행동 경제학에서의 재무불안은 다양한 경제적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개인의 반응으로 정의되고 있다(Geller, 2013). McCormick(2009)은 재무불안이 경기 침체 이후 연료 및 식품 가격 변동, 모기지 압류, 파산 증가, 이에 따른 엄격해진 대출 규제, 저축 감소 등을 경험하면서 현대 사회에 이미 많이 퍼져 있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경제학에서 살펴보는 재무불안은 철학이나 사회학에서처럼 재무불안은 병적인 요인으로 특정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행동 경제학과 미시 경제학에서 살펴보는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가 처한 거시적 환경과 맥락에 대한 불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단일 차원으로 연구되어 왔고, 개인의 재무행동에 대한 능력이나 의지보다는 개인의 재무자원과 관련한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행동 경제학과 미시 경제학에서 살펴보는 재무불안은 불안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상황을 떠올렸을 때의 걱정, 재무관리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은 물론 경제적 조건에 대한 불안 등으로 그 대상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재

무적인 불확실성을 구체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처한 맥락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재무적인 능력이나 의지에 대한 불안의 요소가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무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재무불안과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적 불안정(Economic Distress)과 재무스트레스(Financial Stress)를 다루고 있다. 재무불안, 경제적 불안정, 재무스트레스 모두 개인의 재무적 상황과 연관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제적 불안정(Economic distress)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가계 구조적 요인 및 소득과 고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상황으로 정의된다(Voydanoff, 1990; 정혜경, 여정성, 1999). 경제적 불안정은 그 분석 대상이 가계이다. 또한 재무상황 전반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보다는 가계 구조적 요인, 소득, 고용 등과 같이 가계의 특정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이 포함된다는 것에서 재무불안과 차이가 있다. 재무불안은 개인이 자신의 재무적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만을 의미한다.

재무스트레스와 재무불안이 공통적으로 개인의 재무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인지적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자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무스트레스와 재무불안은 현상의 원인, 대상, 발생시점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재무스트레스(Financial Stress)는 개인이 재무적 의무 및 외부 사건에 직면했을 때의 무능함과 심리적 감정적 영향을 의미한다(Nothern, O'Brien & Goetz., 2010). 재무스트레스는 외부사건과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 재무스트레스는 우리가 재무적인 위험, 손실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처리 가능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CFPB, 2020). 재무스트레스가 아닌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개념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개인이 불리한 환경이나 영향에 대해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개인의 처리 능력에 비해 외

부의 자극이나 정보가 많이 공급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elye, 1976; Lazarus & Launier, 1978). 따라서 재무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지는 않는다(CFPB, 2020). 재무적으로 발생하는 외부사건에 대한 본인의 처리 능력에 따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스트레스의 발생 및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재무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낮은 학업 성적, 건강의 악화, 학위 수료에 대한 어려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drews & Wilding 2004; Northern et al., 2010; Joo, Durband & Grable, 2008; Harding, 2011).

반면 재무불안은 스트레스를 유발한 재무적 사건이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외부사건과는 관계없이 더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CFPB, 2020). 앞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안의 개념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불안은 재무적인 사건이나 업무를 직면한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즉, 재무스트레스는 현재 시점에 집중이 되는 반면, 재무불안은 현재와 미래의 시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불안의 경우 불안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하여 불안을 느낀다. 소비자불안의 개념을 살펴보면 소비자불안은 소비자가 소비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긴장, 염려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제를 인식한 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누적된 감정이다(사지연, 여정성, 2014). 재무불안도 재무적 사건을 직면했을 때의 느끼는 순간적인고 업무적인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무불안과 재무스트레스는 각각의 원인, 대상, 발생시점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불안과 재무스트레스가 개인의 재무관리 행동과 능력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라는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무불안과 재무스트레스를 혼재하여 사용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며, 개념적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Grable, Heo & Rabbani, 2015; Hasler, Lusardi, & Valdes, 2021).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각 학문 영역별로 재무불안의 개념의 차이가

있으며,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재무불안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 수 있었다. 재무설계 및 재무치료의 측면에서 재무불안은 병리학적 현상으로 개인의 재무관리 능력과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불안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다. 행동 경제학 및 미시 경제학에서의 재무불안은 재무불안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현재 상황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재무불안의 대상이 불명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재무불안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간과했던 재무불안의 범위를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재무불안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재무불안은 첫째, 개인의 차원에서 느끼는 불안이다. 둘째, 재무불안은 병리학적인 반응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느끼는 상태불안을 의미한다. 셋째,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재무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현재 상황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제 2 절 재무불안의 측정과 관련 요인

본 절에서는 우선 타 학문에서 불안이 어떻게 측정되고 또 각 불안 별로 측정도구의 차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 후 재무불안의 측정 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재무불안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재무불안의 측정

재무불안 측정을 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살펴보면 모두 재무불안을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안은 더 이상 하나의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척도 역시 다차원으로 개발되고, 여러 차례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재무불안은 여전히 단일 차원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이에 먼저 다른 분야에서 불안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불안의 측정

불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만큼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하는 불안의 척도는 Spielberger(1972)의 척도이다.

Spielberger(1972)의 불안 척도는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상태불안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정서 상태로 걱정이나 염려가 의식적으로 지각되는 감정을 의미한다. 특성 불안은 개인이 평소에 느끼는 불쾌감, 긴장, 신경과민, 근심, 걱정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비교적 변화가 없는 개인의 기질과 관련된 것이다. 즉,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개인이 지닌 특성에 따른 반응으로 구분이 된다. Spielberger(1972)의 불안 척도는 이전에는 단일 차원으로 살펴보던 불안을 두 가지 차원으

로 구분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Spielberger(1972)의 불안 척도 검증 및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각각을 검증하였고, Spielberger(1972)의 척도는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 참고하고 있는 척도이다.

사회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서도 Spielberger(1972)의 척도를 기반으로 각 영역별 척도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Spielberger(1972)의 척도를 각 영역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특성불안보다는 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한 상태불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인과의 교류 상황, 발표 상황, 죽음의 상황, 도서관 이용 상황, 기술 이용 상황, 특정 재화나 서비스 구매 및 이용 상황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불안이 대상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정서 상태를 살펴보는 상태불안척도가 기반이 된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불안을 살펴보는 대인불안, 죽음불안, 사회불안, 시험불안, 기술불안 등의 척도들은 각 상황이 지는 특성에 따라 다시 다양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다. 죽음불안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맥락과 환경에 대한 죽음의 과정 및 주변 관계에 관련한 두려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Beg & Zill, 1982; Karasu, 1985; Lonetto, Fleming & Mercer, 1979; Saggino & Kline, 1996; 고효진 외, 2006). 시험불안 역시 걱정요인(Worry), 정동요인(Emotionality), 혼란요인(Distraction), 자신감 결여(Lack of Confidence) 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시험불안 척도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과 시험을 보는 맥락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Hodapp & Benson, 1997). 도서관불안척도(Library Anxiety Scale), 기술불안(Technology Anxiety) 등도 개인이 도서관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불안과 개인이 도서관을 사용하거나 기술을 사용할 때에 처한 낯선 환경이나 맥락에 대한 불안으로 그 하위 차원이 구분된다(Jiao & Onwuegbuzie, 1998 Meuter et al., 2003; Yang & Forney, 2013).

불안에 대한 척도들은 초기에는 단일 차원으로 측정이 되었으나 연구를 통해 불안이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다수의 불안 척도들이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과 함께 특

정 상황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소비 품목에 대한 불안을 연구해 온 소비자불안의 경우도 각 소비 품목의 특성에 따라 그 하위 차원이 구분되었다. 김길홍, 유현정(2016)은 Spielberger(1972)의 상태특성불안 척도(STAI)를 바탕으로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총 7문항의 단일 차원의 소비자불안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일 차원의 소비자불안 척도였으나 소비자 조사 후 요인분석을 진행하였고,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소비자불안이 불안감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밝혔다.

유태순(1995)은 기성복 구매자들의 구매불안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는 Spielberger, Gorsuch & Lschen(유태순 & 김영란, 1992에서 재인용))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기성복 구매자들의 구매불안 척도는 유행과 디자인의 적합성,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소재 및 색상의 적합성, 착용과 관리상의 실용성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었다.

한지형(2019)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금융 사용과 관련하여 느끼는 불안에 대하여 기술불안을 기반으로 하여 내부귀인 불안과 외부귀인 불안으로 구분하여 총 6개의 모바일 금융소비자 불안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특정 소비 품목에 대한 소비자불안 역시 불안은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한지형(2019)의 연구를 보면 모바일 금융이 내부귀인 불안과 외부귀인 불안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내부귀인 불안은 기술을 사용한느 소비자 스스로의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불안, 외부귀인 불안은 소비자가 직면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 모바일 금융의 경우 소비자의 능력과 소비자가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의 차원으로 불안의 차원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불안에서의 하위 차원의 구성과 유사하다.

특정 소비 품목에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의사결정과 의사결정 의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불안 척도를 구성한 연구도 있다

(Capelli, 2005). Capelli(2005)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의사결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표 2-1]). 그는 소비자불안을 특정 재화나 서비스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불안을 다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그는 총 19개의 소비자불안 문항을 도출해 내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불안은 신체적 불안, 거시 사회적 불안, 미시 사회적 불안, 고용 불안, 재무 불안, 업무 불안의 6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서 경험하는 소비자불안을 보는 연구들에서는 살펴보기가 어려웠던 소비자가 처한 구매 환경의 측면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에 대한 불안도 소비자 불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시적인 불안, 재무에 대한 불안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점이다. 이러한 불안들은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가용자원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지출 구조나 생활양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할 불안 요인이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Capelli(2005)의 하위 차원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의 연구는 기존 소비자불안 연구에서 살펴보기 어려웠던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의 불안과 소비자가 처한 맥락과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단일 차원으로 측정이 되어오는 재무불안과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안은 다차원으로 구성되는 개념임이 검증되었고, 이후 다차원으로 측정되어 오고 있다. 특히 불안의 개념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불안의 하위 차원이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처럼 개인의 내적인 자원에 대한 불안은 물로 개인이 불안을 느끼는 환경에 대한 불안이 불안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Capelli(2005)의 소비자 불안 척도 및 하위차원

| 구분 | 측정 내용 |
|---|---|
| 신체적 불안 |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렵다.<br>언젠가는 난치병(암)에 걸릴까 두렵다.<br>나는 만성 질환 등에 걸리는 상황이 두렵다.<br>나는 미래에 육체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두렵다. |
| 거시 사회적 불안 | 지속적인 환경 훼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br>나는 전쟁이 두렵다.<br>식품 안전 문제가 걱정된다. |
| 미시 사회적 불안 | 내가 그룹에 속해있지 않으면 두렵다.<br>나는 우정을 잃는 것이 두렵다.<br>나는 수줍음이 많아서 무리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
| 고용 불안 | 내가 해고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다.<br>언젠가 직장을 잃을까 두렵다.<br>나는 직업을 바꾸는 것이 두렵다. |
| 재무 불안 | 매달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된다.<br>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br>나는 충분히 저축하지 않는다. |
| 업무 불안 | 일이 너무 많아 긴장을 풀 수 없다.<br>내 업무 책임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br>매일의 업무 갈등이 나에게 큰 스트레스이다. |

2) 재무불안의 측정

Shapiro & Burchell(2012)의 연구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재무불안만을 측정하는 척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재무불안은 기존의 화폐태도를 측정하는 화폐태도 측정도구의 하위 척도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화폐태도의 하위 요소로 측정되는 재무불안 척도는 재무불안에 대한 적절한 측정이 어렵다

고 생각한 Burchell(2003; Shapiro & Burchell(2012)에서 재인용) 재무불안 측정도구를 개발을 시작하였다, Burchell(2002; Shapiro & Burchell(2012)에서 재인용)은 전화를 통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재무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 중 감정 요인이 금융소비자의 재무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 이후 연구자들의 금융소비자 재무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감정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재무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척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재무불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Joo et al, 2008; Northern et al, 2010, Klontz et al., 2011, Sage et al, 2013; Jenkins et al, 2013; Lekiewicz et al., 2014; Heo, Cho & Lee, 2020). Shapiro & Burchell(2012)은 심리학, 생리학, 신경과학에서 불안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스트루프 과제(Stroop task)와 점탐사과제(Dot-Probe paradigm)를 확장시켜 재무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재무불안 척도가 일반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와는 별개의 구조이며, 재무불안 척도의 타당성을 밝혔다.

Archuleta, K. L. et al.(2013)은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Diagnostic(DSM-IV-TR, APA 2000)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재무불안 척도를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들은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재정불안에 대한 기준 점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불안 진단도구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개인이 자신의 재무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재무불안은 재무상황(financial situation)에 대한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반응으로 불안감, 통제 가능성, 긴장감, 피로감 등으로 측정된다. 이 연구에서 재무불안의 척도는 범불안장애 척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재무불안의 경험이 병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수준을 측정하였다.

재무불안을 연구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Shapiro & Burchell(2012), Archuleta et al.(2013)의 척도를 사용해 왔다. 이 두 연구의 재무불안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는 나의 재무 상황을 생각하면 불안하다'와 같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Grable et al, 2; Hasler, Lusardi, & Valdes, 2021).

앞서 재무불안 개념의 한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재무불안 척도는 문제적인 재무행동을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불안에 집중된 측정 도구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재무불안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양한 학문에서 불안은 단일 차원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각 연구 영역별 불안이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의 척도가 필요함이 강조되어 왔다(Bostick, 1992; Jiao & Onwuegbuzie, 1998; Saggino & Kline, 1996; Devins, 1979). 특히 기술불안, 모바일금융불안 등의 이용자나 소비자가 처한 환경이 변화하며 등장한 불안의 경우 개인이 느끼는 불안의 경우 개인이 지닌 의지나 능력에 따른 불안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이 강조되며, 불안의 하위차원에 이러한 맥락적인 차원이 포함되고 있다(Meuter et al., 2003; Yan & Forney, 2013; 한지형, 2019).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지에 대한 염려나 단순히 심리적, 신체적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로 금융소비자들을 둘러싼 개인적, 거시적 환경 맥락에서의 불안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재무행동과 재무관리를 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이익을 기대하게 되는데, 금융상품의 기대 이익과 선택의 결과는 금융시장의 주체들의 활동에 따라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금융시장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금융상품 이익실현은 영향을 받는다. 금융관련 정책의 변경, 거시 경제적인 요인이 금융 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Shiller, 1996; Kim, 2010). 즉, 개인의 건전한 재무관리행동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변화가 개인의 재무관리행동 및 심리에 영

향을 미치는 최근의 상황에서 재무불안은 단순히 문제 행동을 하는 특정 소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재무불안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2-2] 재무불안 척도

| 구분 | 측정 내용 |
|---|---|
| Archuleta, K. L. et al. (2013) | 1. 나는 나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br>2. 나는 나의 재무 상황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다.<br>3. 나는 나의 재무 상황 때문에 나의 업무나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br>4. 나는 나의 재무 상황 때문에 민감하다.<br>5. 나는 나의 재무 상황에 대한 걱정을 통제하기가 어렵다.<br>6. 나의 몸은 나의 재무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긴장감을 느낀다.<br>7. 나는 나의 재무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피로감을 느낀다. |
| Shapiro & Burchell (2012) | 1. 내 은행 또는 신용 카드 계정을 확인하는 것은 즐겁지 않다.<br>2. 나는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br>3. 내 재정 상태와 관련한 생각을 할 때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br>4.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이나 재무관리를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br>5. 대학 교육을 마쳤을 때 여전히 대출이 있을까 걱정된다.<br>6. 내 재정 상태를 생각하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br>7. 나는 나 자신을 위한 돈을 어떻게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br>8. 내 재정에 대한 이야기나 대화 시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스트레스를 느낀다.<br>9. 나는 나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br>10. 나는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를 잘 할 수 없다.<br>11. 나는 나의 계좌를 확인할 때 즐겁지 않다.<br>12.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재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

## 2. 재무불안 관련 요인

### 1)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불안과 소비자불안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에는 다양항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연구들이 인구통계학적 요인, 불안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통계학적 요인, 지식수준, 사회비교 요인들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성별의 경우 다수의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의 불안 수준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 김미라, 2009; 김길홍, 유현정 & 송유진, 2017; 이선주, 1995). 최경숙, 김지은(2020)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연구에 따라 성별에 따른 불안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주현, 이순묵, 2002).

소득수준과 교육수준도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Hogan & Bernigng, 2012; Wang, Zhang, Ortega & Widmar, 2013; 최경숙, 김지은, 2020). 이 두 가지 요인은 소비 품목에 따라 불안과의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대한 불안의 경우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불안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전상민, 2014, 최경숙, 김지은, 2020). 그러나 모바일 재무불안과 경우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무불안도 높아진다(김길홍 외, 2017; 한지형, 2020).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경우 위험과 관련한 자신의 통제역량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Hogan & Bering, 2012).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은 모두 소비자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의 객관적 지식수준과 소비자불안과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그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Frewer, Shepherd & Sparks, 1994). 전상민

(2018)은 소비자지식이 높을수록 식품 관련 안전행동 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불안 수준은 낮아진다고 이야기했다. 유현정, 주소현(2012)은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안전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 지식과 불안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rewer et al.(1994)는 객관적 지식과 소비자불안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는 사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식과 소비자불안 간의 관계를 일방적인 방향성이 있다고 일반화시키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과 소비자불안의 부적관계에 대하여 밝힌 연구도 있다(사지연, 2014).

사회비교경향성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개인의 성향으로 이는 개인의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ibbons & Buunk, 1999; 류지현, 이아라, 2019). 자신의 준거집단이나 사회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우는 취업불안, 사회불안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비교 경향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데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지현, 이아라, 2019; 서은희, 김정남, 2018). 사회비교의 방향에 따라 불안의 강화와 완화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는 상향 비교로 이 경우에 불안은 강화된다. 반대로 자신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유사 비교의 경우에는 불안이 완화된다는 연구도 있다(Amoroso & Walters, 1969; Lemyre & Smith, 1985).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비교의 방향성보다는 사회비교 경향성을 초점으로 한 연구가 많고,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불안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황적 관련요인, 기질적 관련요인, 환경적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여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Anthony, Qun & Sharon, 2004; Jiao & Onwuegbuzie, 1998). 기질적 관련요인은 특정 상황에서의 개인의 내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은 자극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 환경, 환경적 요인은 기질적 요인과는 다른 개인의 외재적 요인이다.

[표 2-3]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요인 | | | 선행연구 |
|---|---|---|---|
| 인구통계학적 요인 | 성별 | 여성↑ | 김효정, 김미라, (2009), 김길홍 외(2017) 최경숙, 김지은(2020) 등 |
| | | 무관 | 이주현, 이순묵, (2002), 한남식, 이주경(2012) |
| | 소득수준 | (-) | Hogan & Bernigng (2012), Wang et al.(2013), 전상민(2017), 최경숙, 김지은(2020) |
| | 교육수준 | (-) | Hogan & Bernigng (2012), Wang et al.(2013), 김길홍 외(2017), 한지형(2019)최경숙, 김지은(2020) |
| 소비자 지식 | 객관적지식 | (-) | 전상민(2018), 유현정, 주소현(2012) |
| | 주관적지식 | (+) | 사지연(2014) |
| 사회비교 경향성 | 사회비교 경향성 | (+) | Gibbons & Buunk, (1999), 류지현, 이아라(2019) |
| | 상향비교 | (+) | Amoroso & Walters, (1969), Lemyre & Smith(1985) |
| | 하향비교 유사비교 | (-) | Amoroso & Walters, (1969), Lemyre & Smith(1985) |

재무불안에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재무지식, 재무자원, 그리고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선행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성별이 재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불안과 소비자불안과 동일하게 여성의 재무불안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가 다수이다(Archuleta et al., 2013, Bennett, McCarty, Carter, 2015, Britt, Canale, Fernatt, Stutz & Tibbetts, 2015; Roll, Taylor &

Grinstein-Weiss., 2016; Potter at al., 2020).

금융소비자의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 때 재무불안은 낮게 나타난다(Zaimah, Masud, Haron, Othman & Sarmila, 2013; Sachin, Ramesh, Saravana & Rajashekar, 2021). 결혼을 한 금융소비자와 저녀가 있는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 수준이 그렇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Archuleta et al., 2013; Roll et al., 2016; Kadoya, Khan, Hamada & Dominguez, 2018). 주택 소유나 가족의 규모도 재무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Roll et al., 2016; Sachin et al., 2021).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무불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가족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의 재무지식도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객관적인 재무지식의 경우 연구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Archuleta et al.,(2013) 경우 객관적 재무지식이 재무불안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Kadoya et al., (2018)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재무지식이 재무불안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재무지식의 경우에도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연구에 따라 그 영향의 유의성이 달랐다. Britt et al, (2016)과 Potter et al., (2020)은 주관적 재무지식이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하지만 Archuleta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재무지식과 재무불안 간의 유의한 관계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불안의 경우 주관적지식이 높은 경우 소비자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무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자신의 재무지식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재무적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더 정확할 것이며, 주관적 재무지식과 재무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Potter et al., 2020).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재무 자원도 소비자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신의 재무 상태에 대한 인지와 소득 수준도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친

다(Britt et al., 2015, Potter et al., 2020).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인지와 소득 수준에 대한 인지는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부채, 자산, 학자금 대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자금 등 역시 소비자불안과 관련이 있다. 부채와 학자금 대출은 규모가 클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높고, 자산이 높을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낮으며, 비상자금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apiro & Burchell, 2012; Archuleta et al., 2013; Britt et al, 2015; Roll et al., 2016, Kadoya et al., 2018; Sachin et al., 2021). 부채 중에서도 특히 학자금과 신용 카드 사용 비용 및 신용대출의 규모가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oo et al., 2003). 특히 부채나 학자금 대출이 재무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부채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도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학교나 직장이 친숙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경우, 우울감이 있는 경우에도 재무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Gollust, Golberstein & Hefner, 2007; Joo et al., 2008; Potter et al., 2020).

주변 동료와의 재무적인 조건을 비교하는 비교경향성은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Poter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주변과 비교를 자주하는 사람의 재무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재무 자원, 사회적 지지 등도 재무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주변과의 비교경향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재무불안에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그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재무상황을 타인과 비교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재무불안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 태도 및 평가는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Heckman, Lim, & Montalto, 2014).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 외에도 다양하다.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도, 화폐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재무불안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재무불안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개인의 내부 자원과 외부 환경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Potter et al.(2020)은 일반체계이론과 적응수준이론을 기반으로 한 로이적응모형(Roy Adoption Model)을 통해 재무불안을 설명한다. Potter et al.(2020)은 불안을 내부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는데, 이 때 불안에 자극을 주는 요인을 기본적인 재무 자원 및 능력, 자기개념, 상호의존, 역할기능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기본적인 재무 자원 및 능력은 현재 소득에 대한 인식, 재무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의 능력으로 구성된다. 자기 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인식으로 동료와의 재무상황 비교, 주관적 재무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상호의존 요소는 사회적 지지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Potter et al.(2020)은 사회적 지원 요소를 상호의존 요소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역할기능은 개인의 인구 통계학적 배경을 의미한다.

Potter etl al.(202))의 연구는 재무불안을 개인의 내부적인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함께 살펴본 연구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재무불안의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는 Potter et al.(2020)의 연구와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본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재무지식, 재무자원, 심리적 요인을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등 선행연구에서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Potter et al.(2020)의 연구에서의 역할기능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포함된다. 재무지식은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재무자원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월 평균 소득 수준과 신용 부채 수준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은 Potter et al.(2020)의 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주변과의 비교 성향으로 구성된다.

[표 2-4]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요인 | | 관계 | 선행연구 |
|---|---|---|---|
| 인구 통계 학적 요인 | 성별 | 여성 ↑ | Britt et al,(2015), Roll et al.(2016), Potter at al.(2020) |
| | 결혼유무 | 결혼 o | Archuleta et al.(2013), Roll et al.(2016; Kadoya et al., 2018 |
| | 자녀유무 | 자녀 o | Archuleta et al., 2013; Roll et al., 2016), Kadoya et al.(2018) |
| | 가족규모 | 가족 ↑ | Roll et al.(2016), Sachin et al.(2021) |
| | 교육수준 | (-) | Zaimah et al.,, 2013; Sachin et al., 2021 |
| 지식 | 객관적 재무지식 | (-) | Kadoya et al.(2018) |
| | 주관적 재무지식 | (+) | Britt et al,(2016), Potter et al.(2020) |
| 재무 자원 | 부채/학자금 | (+) | Shapiro & Burchell(2012), Archuleta et al.(2013), Joo et al.,(2003) |
| | 자산 | (-) | Bennett et al,(2015), Britt et al,(2015) Roll et al.(2016), Kadoya et al.(2018) |
| | 비상자금규모 | (-) | Kadoya et al.(2018), Sachin et al.(2021) |
| | 재무상태 및 소득주순 | (-) | Britt et al,(2016), Potter et al.(2020) |
| 심리적 요인 | 동료와의 비교 | (+) | Britt et al,(2016), Potter et al.(2020) |
| | 미래에 대한 태도 | (-) | Heckman et al., (2014), Potter et al.(2020) |

2) 재무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불안이 개인의 삶이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불안은 삶의 만족도, 업무수행 능력, 사회관계 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Elliot & McGregor, 1999; Jenkins et al, 2013; 김정희, 박지영, 2015). 이와는 반대로 학습에 있어서 불안이 학습 결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시험불안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시험불안을 느끼는 학생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를 더 탐색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이 시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ullivan, 2013; 이주현, 이순묵, 2002).

소비자불안은 소비자 소비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하여 소비 품목 별로 살펴보면,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자불안은 소비자의 식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성림 외, 2014). 전상민(2014)는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불안이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생활만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최경숙, 김지은(2020)은 전국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불안이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 만족도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증가할수록 식품 소비 및 식생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어플리케이션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불안은 소비자의 식당 예약 어플리케이션 이용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elashvili, martinez-Navalon & Enriquez, 2021).

소비자불안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소비자역량이나 소비자 지식, 자기 효능감들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Fonfría et al., 2015; Bailey et al., 2010; 전상민, 2014). Fonfría et al.(201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 민감도에 그룹을 나누고 보상, 처벌의 조건이 포함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불안 수준이 낮은 참가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불안한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상민(2014)는 소비자 불안이 친환경상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비자 불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요인 | 관계 | 선행연구 |
|---|---|---|
| 업무수행능력 | (-) | Joo et al.(2008), Huebner & Dew(1996) |
| 학습결과 | (+) | 이주현, 이순묵(2002) |
| 소비생활 만족도 | (-) | 이성림 외(2014), 전상민(2014), 최경숙, 김지은(2020), Esmark et al.(2020), Gelashvili et al.(2021) |

재무불안도 일반적 불안과 유사하게 금융소비자의 업무 능력, 학업 집중도, 대인관계 등 상회 적응은 물론 사람들의 재무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업무 능력, 업무 집중도가 감소한다. 대학생의 경우 재무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학업 중단, 학업 집중도 감소 등을 경험한다(Joo et al., 2008, Lim, Heckman, Montalto & Letkiewicz, 2014). 특히 신용카드나 학자금 대출이 있는 대학교 초년생의 경우 높은 재무불안 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적, 사회적응의 어려움, 심리적 정식적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다(Bennett et al., 2015, Jenkins et al., 2013, Northern et al., 2010). Joo et al.(2008)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재무적인 이유로 학업 중단을 하거나 수업 시간을 줄인 학생들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거나 수업 시간을 줄이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무불안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Lim et al.(201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무불안과 재정적 자문 행동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재무불안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전문가의 재무

도움이나 상담을 더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관련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재무불안은 재무관리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다수이다. 재무불안이 높은 경우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단기적인 재무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건전한 재무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Roll et al., 2016). 재무불안은 사람들의 저축과 지출 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선행 요인으로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 신용카드나 각종 공과금 청구서 관리 및 지불의 어려움, 신용카드의 한도 초과 지출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Lim & Teo, 1997; Sages, Britt & Cumbie, 2013). Kempson et al.(2017)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은 재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재무행동 간의 매개 요인으로 작용 한다, 또한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은 재무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과 소비자의 재무행동 간의 조절변수로써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재무불안에 따른 병리적인 재무행동을 살펴본 Klontz, Britt & Mentzer.(2011)의 연구에서 재무 불안은 재무 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 재무 장애에는 재무적 능력(enabling), 강박적 구매 장애(compulsive buying disorder), 강박적 사재기(compulsive hoarding),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 일중독(workaholism), 재무적 의존성(financial dependence), 재정적 부정(financial infidelity), 재정적 혼란(financial enmeshment)이 포함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재무불안은 개인의 일상이나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동시에 재무관리행동이나 재무행동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재무행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Jenkins et al., 2013; Sage et al., 2013; Roll et al., 2016; Heo et al., 2020).

[표 2-6] 재무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요인 | 관계 | 선행연구 |
|---|---|---|
| 학업집중도 | (-) | Joo et al.(2008), Letkiewicz et al.(2014) |
| 사회적응 | (-) | Bernnet et al.(2015), Jenkins et al.(2013), Northern et al.(2010) |
| 재무관리행동<br>재무행동 건전성 | (-) | Roll et al.(2016), Sages et al.(2013), Klontz et al.(2011) |

#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수준을 진단한다. 또한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화를 진행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재무불안 수준 진단을 위하여 먼저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을 포괄할 수 있는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과 척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수준을 파악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불안의 하위차원에 따라 소비자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 지식, 재무 자원, 심리적 요인이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유형화하고, 재무불안 유형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 지식, 재무 자원, 심리적 요인, 그리고 재무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의 수준은 어떠한가?

1-1.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2.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재무불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3-1. 재무불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3-2.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유형에 따라 소비자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3.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유형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제 2 절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 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재무불안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재무불안의 개념을 확장 및 재정의하고 이에 대한 하위차원을 구성하였다. 불안, 소비자불안, 재무불안의 개념과 측정에 대하여 다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선행연구와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 고찰하여 금융소비자불안의 개념과 측정 도구를 도출하였다. 재무불안에 대해서 다룬 Archuleta et al., (2013), Shapiro & Burchell (2013), Porter et al.(2020)의 연구를 기반으로 재무불안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였다. 또한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요소를 다룬 다양한 연구를 고찰하여 재무불안의 환경적 측면의 하위차원을 도출해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된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의 수정과 타당성 검증 및 위하여 1,06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후 분석 전 결측치 등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1,05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은 국내 거주 금융소비자로 20대 중반부터 40대를 대상으로 할당표집하여 구성되었다. 온라인 설문은 전문 리서치 기관 ㈜엠브레인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았다(IRB No. 2211/003-007).

조사대상자를 20대 중반에서 40대로 구성한 것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의사결정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소득 및 생애주기 변수는 금융자산 보유 행동이나 부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Xiao, 1996; 백은영, 2009). 생애주기와 관련한 가구주의 연령, 결혼상태, 고용상태, 자녀의 존재여부 등이 가구의 지출, 저축, 자산, 부채와 관련한 재무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애주기에 따라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시기에 가구는 부채와 자산이 증가한

다(백은영, 2009). 최근에는 노후 위험에 대한 대비도 소득이 충분한 시기에 시작한다. 생애주기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결혼과 출산, 양육, 노후 준비를 위한 시기가 일반적으로 20대 중반에서 40대임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AMOS 26, 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위한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무불안의 하위차원을 밝히고 각 하위차원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재무불안의 하위차원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도수정 보완한 재무불안 하위차원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수준을 진단하였다. 이후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재무 지식, 재무 자원, 심리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 분류하기 위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유형 별 소비자 특성, 재무관리행동 차이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의 경우 남성이 544명(51.6%), 여성이 510명(48.4%)이다. 연령대는 25세 이상 30세 미만 209명(19.8%), 30대 379명(36.0%), 40대 466명(44.2%)이다. 거주지역 구성은 수도권 331명(31.4%), 광역시 및 세종시 거주 335명(31.8%), 시 단위 거주 261명(24.8%), 군 단위 거주 127명(12.0%)이다. 거주형태는 자가가 666명(63.2%), 전세가 221명(21.0%), 월세는 137명(13.0%), 기타가 30명(2.8%)이다.

직업 구성은 전문직 103(9.8%), 사무/관리직 676명(64.1%), 서비스/판매직 82명(7.8%), 미취업 193명(18.3%)이다. 근로유형은 직업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총 861명으로 상용직 752명(71.3%), 임시직 64명(6.1%), 자영업 및 고용주 45명(4.3%)이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128명(12.1%), 전문대학 졸업 160(5.%), 대학교 졸업 652(61.9%), 대학원 졸업 이상 114(10.8%)이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508명(48.2%), 기혼 및 동거가 519명(49.2%), 이혼 및 사별 27명(2.6%)이다. 가구구성원은 평균 2.8명으로 1인가구는 212명(20.1%), 2인 가구는 207명(19.6%), 3인 가구는 292명(27.7%), 4인이상 가구 343명(32.5%)이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423명(40.1%),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631명(59.9%)이다. 자녀가 1명인 응답자는 176명(16.7%), 2명인 응답자는 247명(23.5%)이다.

조사자들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평균 334.3만 원이며, 0원 이상에서 250만원 미만 409명(38.8%), 25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 481명(45.6%), 500만원 이상164명 (15.6%)이다. 부채의 경우 신용부채에 대하여 기입하기를 요청하였고, 부채가 없는 응답자가 560명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하고 있었고, 9천만원 미만이 376명 35.7%, 9천만원 이상이 118명 11.2%였다. 월평균 소득수준과 신용부채수준의 범주 구분의 기준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고하였다. 우리나라 2021년 가구 연평균 소득 금액(약 6,400만원)과 소득 6분위 기준을 참고하여 250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범위를 구분하였다. 2022년 3월말 가구 평균 부채규모는 약 9천만원이다. 본 연구의 응답자의 경우 신용부채가 없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부채의 편차가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부채 수준 미만과 이상으로 그 범위를 구분하였다. 조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정기예적금 914명(86.7%), 투자성상품 752명(71.3%), 보험상품 779명(93.9%), 연금상품 331명(31.4%), 대출상품 494명(46.9%)이 각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표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구분 | 빈도 | % | 변인 | 구분 | 빈도 | % |
|---|---|---|---|---|---|---|---|
| 성별 | 남성 | 544 | 51.6 | 결혼상태 | 미혼 | 508 | 48.2 |
| | 여성 | 510 | 48.4 | | 기혼 및 동거 | 519 | 49.2 |
| 연령 (평균37.4세) | 26~29세 | 209 | 19.8 | | 이혼 및 사별 | 27 | 2.6 |
| | 30~39세 | 379 | 36.0 | 가구구성원 수 (평균 2.8명) | 1명 | 212 | 20.1 |
| | 40~49세 | 466 | 44.2 | | 2명 | 207 | 19.6 |
| 거주지역 | 수도권 | 331 | 31.4 | | 3명 | 292 | 27.7 |
| | 광역시 및 세종 | 335 | 31.8 | | 4명 이상 | 343 | 32.5 |
| | 시 단위 | 261 | 24.8 | 자녀 수 (평균 0.7명) | 없음 | 631 | 59.9 |
| | 군 단위 | 127 | 12 | | 1명 | 176 | 16.7 |
| 거주형태 | 자가 | 666 | 63.2 | | 2명 이상 | 247 | 23.5 |
| | 전세 | 221 | 21 | 월평균소득수준 (평균 334.3만원) | 250만원 미만 | 409 | 38.8 |
| | 월세 | 137 | 13 | | 500만원 미만 | 481 | 45.6 |
| | 기타 | 30 | 2.8 | | 500만원 이상 | 164 | 15.6 |
| 직업 | 전문직 | 103 | 9.8 | | 표준편차 387.9만원 | | |
| | 사무/관리직 | 676 | 64.1 | 신용 부채수준 (평균 2,812.5만 원) | 없음 | 560 | 53.1 |
| | 서비스/판매직 | 82 | 7.8 | | 9000만원 미만 | 376 | 35.7 |
| | 미취업 | 193 | 18.3 | | 9000만원 이상 | 118 | 11.2 |
| 근로 유형 (n=861) | 상용직 | 752 | 71.3 | | 표준편차 6432.9만원 | | |
| | 임시직 | 64 | 6.1 | 금융상품 보유 여부 | 정기 예적금 | 914 | 86.7 |
| | 자영업 및 고용주 | 45 | 4.3 | | 투자상품 | 752 | 71.3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 128 | 12.1 | | 보험상품 | 779 | 73.9 |
| | 전문대학 졸업 | 160 | 15.2 | | 연금상품 | 331 | 31.4 |
| | 대학교 졸업 | 652 | 61.9 | | 대출상품 | 494 | 46.9 |
| | 대학원 졸업 이상 | 114 | 10.8 | | | | |

###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의 조사도구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엿다. 설문지는 재부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재무불안과 관계가 있는 재무관리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재무 지식, 재무 자원, 심리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재무불안의 측정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측정 도구는 연구결과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 1) 재무 지식

객관적 재무지식은 경제활동 시 개인의 재무거래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실제 지식을 의미한다. 객관적 재무지식은 저축과 투자 등에 대한 이해 수준과 실행 능력을 평가하여 측정한다(Xiao & O'Neli, 2016; 김옥정, 서용구, 2019). 객관적인 재무지식의 경우 연구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Archuleta et al.,(2013) 경우 객관적 재무지식이 재무불안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Kadoya et al., (2018)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재무지식이 재무불안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객관적 재무지식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객관적 재무지식을 재무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시켰다. 측정도구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측정(2018)에서 제시된 소비자 재무지식 문항을 참고하였다. 객관적 재무지식의 경우 서술된 문장의 옳고 그름을 O, X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른다의 항목을 두어 정답을 모르는 경우 모른다에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정답에는 1점을 부여하였고, 모른다에 응답을 한 경우 오답 처리를 하였으며, 오답에는 0점처리하여 객관적 재무지식을 측정하였다. 객관적 재무지식의 측정 항목은 [표 3-2]와 같다.

[표 3-2] 객관적 재무지식의 측정 문항

| | 객관적 재무지식 |
|---|---|
| 1 | 가구주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재무목표가 달라지면 재무설계안 또한 달라진다 |
| 2 |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전과 동일 제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든다 |
| 3 | 100원을 연이율 2%(복리)의 비과세 저축성 예금에 5년 동안 저축해 둔다면, 5년 후에 동 계좌에는 110만원이 있을 것이다 |
| 4 | 은퇴기 소득원은 예상되는 각종 연금과 저축액 및 부동산 수익 등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
| 5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대한도는 금융기관 당 3,000만원이다 |
| 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 증권 등 금융상품업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가에게 설명의무를 가진다 |
| 7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
| 8 | 여러 회사의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대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각 회사별로 가입한 보험금액에 비례하여 보상 받는다. |

주관적 재무지식은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재무지식 또는 인지된 재무지식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재무와 관련한 개념과 정보에 대하여 스스로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llgood & Wallstad, 2016; 김옥정, 서용구,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재무지식은 연구에 따라 재무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Britt et al, (2016)과 Potter et al., (2020)은 주관적 재무지식이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하지만 Archuleta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재무지식과 재무불안 간의 유의한 관계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

혀졌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재무불안에 대한 주관적 재무지식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관적 재무지식 측정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 측정(2018)과 Potter et al.,(202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주관적 재무지식의 측정 항목은 [표 3-3]에 나타내었다. 주관적 지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3] 주관적 재무지식의 측정 문항

| | 주관적 재무지식 |
|---|---|
| 1 | 나는 나의 재무 상황 및 금융의사결정과 관련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
| 2 | 나의 금융과 관련한 지식 및 이해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

2) 재무 자원

재무자원은 소득, 부채, 자산 등 금융소비자가 그들의 경제 활동을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재무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있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무자원은 중요한 요소이다. 소득과 부채는 모든 재무행동 및 재무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부채, 자산, 학자금 대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자금 등 역시 소비자불안과 관련이 있다. 부채와 학자금 대출은 규모가 클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높고, 자산이 높을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낮으며, 비상자금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apiro & Burchell, 2012; Archuleta et al., 2013, Bennett et al, 2015, Britt et al, 2015; Roll et al., 2016, Kadoya et al., 2018; Sachin et al., 2021). 또한 개인이 자신의 재무 자원을 인식하고 있는 것 역시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신의 재무 자원에 대한 힌식은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Potter et al., 2020).

선행 연구들를 바탕으로 월 평균 소득과 부채수준을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자신의 재무 자원 인식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측정하였다. 재무 자원에 대한 측정문항은 [표 3-4]과 같다. 월평균 소득은 세금 공제 후 실질 소득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채 수준은 신용 대출의 규모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정기예적금, 직접투자, 간접투자,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연금 상품, 담보 대출, 그 외의 대출, 기타투자에 대하여 보유 여부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표 3-4] 재무자원의 측정 문항

| 구분 | |
|---|---|
| 1 |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 2 |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용 대출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포함) |
| 3 | 현재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무엇입니까? |

3) 심리적 요인

재무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서 심리적 요인은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심리적 요인은 금융소비자의 내적인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인 특징이며, 이를 미래에 대한 태도, 주변과의 비교 경향성 등으로 구성하였으며다. 불확실성이 핵심인 재무불안과 이에 대한 대처 행동으로써의 재무관리행동을 살펴볼 때 미래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변수이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태도는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Heckman et al., 2014; Potter et al., 2020). 사회비교경향성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개인의 성향으로 이는 개인의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ibbons & Buunk, 1999; 류지현 & 이아라, 2019; Poter et al., 2010).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는 상향 비교로 이 경우에 불안

은 강화된다. 반대로 자신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유사 비교의 경우에는 불안이 완화된다는 연구도 있다(Amoroso & Walters, 1969; Lemyre & Smith, 1985). 일반적으로 사회비교의 방향성보다는 사회비교 경향성을 초점으로 한 연구가 많고,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불안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재무불안에 있어서는 친구나 동료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재무적 상황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재무불안 수준이 낮았다(Britt et al, 2016; Potter et al., 2020).

심리적 요인의 측정 문항은 [표 3-5]와 같다. 미래에 대한 태도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주변과의 비교 경향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재무 상황에 대한 비교 빈도에 대한 질문과 자신의 재무 상황을 주변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하향 비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5] 심리적 요인의 측정 문항

| 구분 | |
|---|---|
| 1 | 나는 미래에 대하여 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2 | 나는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 3 |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과 나의 재무 상황을 자주 비교하는 편이다 |
| 4 |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 비해 나의 재무 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

4)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은 재무목표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을 계발하고, 이를 실행하

며 점검,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다(이기춘 외, 2000; 이연숙, 양세정, 주인숙, 2000).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은 재무관리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Roll et al., 2016). 재무불안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재무관리행동은 관리의 과정 또는 재무 영역을 기준으로 다차원으로 측정되어 왔다. 다만, 재무관리행동을 과정으로 평가 측정하는 척도의 경우 가계가 직면하는 다양한 재무 영역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행동 측정 시 재무관리의 영역을 기준으로 그 하위차원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운영 외, 2020). 재무관리 행동은 일반적으로 소득 획득, 소비지출, 세금, 저축, 투자, 차용, 위험관리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Titus, Fanshow, & Hira (1989)는 재무관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 즉, 예산수립, 가계부기록, 신용사용, 저축, 위기관리행동으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고, Parrotta & Johnson(1998), Peter & German(1993)은 현금, 신용, 위험, 은퇴와 유산, 자본축적, 일반적 재무관리의 6가지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김경자(2003)는 장단기 재무목표 여부, 저축이나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계획의 여부, 저축이나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계획의 여부, 소득과 지출의 기록 및 평가여부에 대한 재무설계 행동과 소득의 획득, 소득의 배분, 소비품목별 소득 배분, 신용관리행동을 재무관리행동에 포함시켰다. 김미린, 홍은실(2010)은 재무관리행동을 소득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투자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김미린, 홍은실(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참고하여 재무관리행동의 영역별로 그 하위 차원을 정리하였고, [표 3-6]와 같이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재무관리행동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6] 재무관리행동의 측정 문항

| 구분 | | |
|---|---|---|
| 지출 관리 행동 | 1 | 효율적인 지출관리(생필품 가격 변동 여부, 할인 정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다 |
| | 2 | 소득을 꼭 지불해야 하는 부분(저축, 세금, 관리비 등)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으로 식비, 피복비, 교양 오락비 등에 사용한다 |
| | 3 | 가계의 지출 비목을 구분하여 지출 내용과 지출 금액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
| | 4 | 두 세달에 한번씩 지출 예산을 평가하고 분석한다 |
| | 5 | 수립한 지출 계획을 잘 지킨다 |
| 투자 관리 행동 | 6 | 나의 투자 목표와 현재 재무 상황에 적절한 투자방법(저축, 펀드, 직접투자, 부동산 등) 및 투자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 | 7 | 생활비 지출 전에 투자 금액을 미리 예산에 포함시킨다 |
| | 8 | 금리 상승 시에는 단기금융상품(1년 이하)이나 변동 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며, 금리 하락 시에는 장기금융상품(2년 이상)이나 확정 금리형 상품에 투자한다 |
| | 9 | 선택한 투자 방법이 투자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최소 6개월 단위로 평가한다 |
| 부채 관리 행동 | 10 |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 매월 이자 및 상환금액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 자주 확인한다 |
| | 11 | 대출이 필요할 경우(주택구입, 학자금 대출, 자동차 구입 등)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확인한다 |
| | 12 |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부채상환결과를 평가해본다 |
| 위험 관리 행동 | 13 | 생명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또는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였다(가입되어 있다) |
| | 14 |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15 | 현재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의 규모가 나의 위험 대비책으로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16 | 현재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의 규모가 현재 나의 소득 및 자산 대비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제 4 장 연구결과

## 제 1 절 재무불안의 하위차원과 현황 진단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단일차원으로 측정되어 왔던 재무불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재무불안의 개념을 확장하고, 하위차원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재무불안의 하위차원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재무불안 하위차원을 기반으로 현재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수준을 진단하였다.

### 1. 재무불안 하위차원 도출 및 측정 도구 구성

#### 1) 재무불안 하위차원 도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재무자원 및 재무행동, 이와 관련한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이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재무불안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재무불안의 개인 재무자원 및 재무행동의 차원은 Shapiro & Burchell(2012), Archuleata et al.(2013)의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두 연구는 모두 재무불안에 대하여 단일차원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무 상황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rchuleta et al.(2013) 연구에서 재무불안은 재무 상황(financial situation)에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반응으로 불안감, 피로감, 통제가능성 등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재무불안 척도는 범불안장애 척도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재무불안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또한 재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Shapiro & Burchell(2012)의 연구 역시 재무 상태나 재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척도에 은행 계좌 확인, 신용카드 사용 및 계정 확인, 대출, 저축, 소득과 관련하여 재무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두 연구의 측정 도구의 내용과 개인의 재무관리능력에 대한 불안이라는 재무불안의 개념으로 미루어 보아, 각 연구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상기하는 재무상황은 자신의 재무자원의 수준 확인 및 소득과 지출 수준 등임을 알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개인적, 거시적 환경과 관련한 불안 요인을 찾기 위해서 소비자 불안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의사결정, 재무행동,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소비자 불안에 있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영역이 아닌 전반적인 소비자 불안을 다룬 연구는 Capeli(2005)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Capelli(2005)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불안이 다차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생각하였다. 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의사결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의 요소를 도출하여 소비자 불안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소비자 불안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에 따라 소비자 의사결정과 소비자 의사결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불안은 신체적 불안, 거시 사회적 불안, 미시 사회적 불안, 고용 불안, 재무 불안, 업무 불안의 6가지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가 소비자의 포함된다고 고려하고, 또한 금융의사결정에 거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Capelli(2005)의 척도를 기반으로 하였다, 다만,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을 때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부족한 척도인 업무량 불안과 미시 사회적 불안의 척도는 제외를 했다.

금융소비자가 처한 거시적 환경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팬데믹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Medyanik(2020, 2021)는 코로나로 인한 보험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행동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험소비자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팬데믹 상황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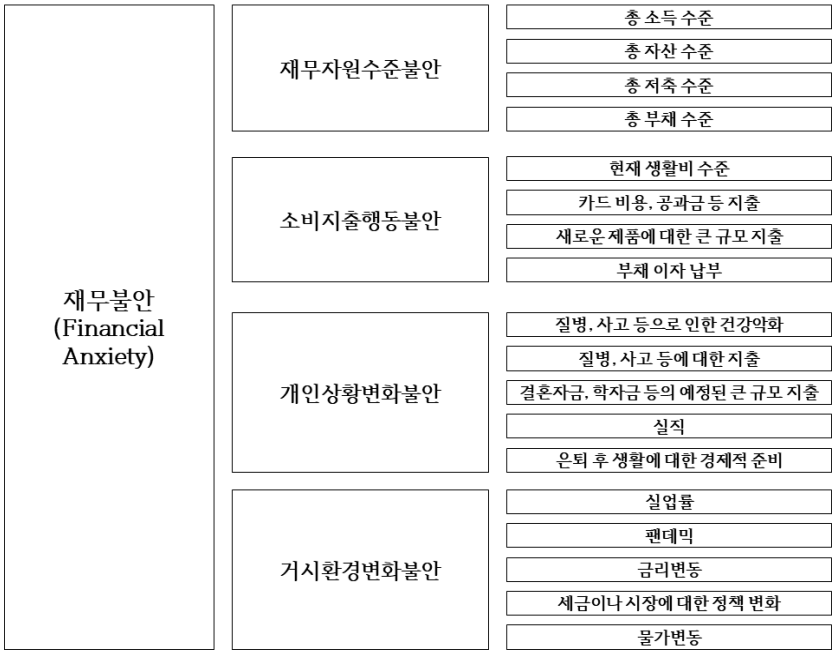
고 있었다. NBA(National Bank of Austrailia)는 2013년부터 소비자 불안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를 조사해 왔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NBA(2020, 2021)는 소비자 불안을 5가지 항목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감을 응답자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소비자불안을 측정하였다. 5가지 항목은 직업안정성, 건강, 은퇴자금, 생활비지출, 정부정책이다. 2020년과 2021년 조사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불안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거시적 환경 측면의 불안 요인을 찾기 위하여 금융의사결정, 소비자동향 및 기대심리와 거시적 경제지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고채 금리, 물가상승률, 실업률, 시장이자율, 국내총생산지표(GDP)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보험계약 해지 및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목, 최원, 2008; 류건식, 장동식, 2009; 황진태, 이경희, 2010). 실업률, 소비자물가, 주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한 정부의 통화정책은 소비자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ller, 1996; Gamer, 2002; 김종권, 2010; 김영준, 신석하, 2016). 이를 바탕으로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불안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태불안의 요소로 금리 변동, 물가상승, 실업률 상승, 경기 전망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재무불안의 하위차원을 도출하여 정리한 결과, 재무자원수준 불안, 소비지출행동 불안, 개인 상황변화 불안, 거시 환경변화 불안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재무자원수준 불안은 현재 자신이 사용가능한 소득, 자산, 저축, 부채 수준 등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자원의 수준에 대하여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소비지출행동 불안은 현재 생활비, 부채 이자, 세금 및 기타 지출로 금융소비자의 소비지출과 관련한 불안으로 이는 금융소비자의 재무행동과 관련된 항목이다. 개인 상황변화 불안은 질병, 사고, 실직, 가구 내 재무 이벤트, 은퇴 등 개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 변화와 관련한 불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거시 환경변화 불안은 실업률, 팬데믹, 금리

변동, 정책 변화, 물가변동과 같이 금융소비자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이다. 재무자원수준 불안, 소비지출행동 불안, 개인 상황변화 불안은 개인의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개선 및 변화가 가능한 차원이지만 거시 환경변화 불안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통제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차원의 요인이다.

재무불안의 하위차원에 재무자원과 재무행동은 물론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개인적, 거시적 환경 측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각 하위차원의 불안이 단기에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불안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적된 심리적 반응이다. 따라서 재무자원과 재무행동과 관련한 재무자원 불안과 소비지출 불안도 누적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Archuleta et al.(2013)가 재무불안 측정 시 응답자의 6개월 이상의 반응에 대하여 측정을 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재무불안은 지난 6개월 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을 [그림 4-1]에 정리하였다.



[그림 4-1]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재무불안 하위차원

### 2) 재무불안의 개념 및 측정 도구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4개의 하위차원 18개의 세부 문항에 대하여 현재 분류한 재무불안의 하위차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검증은 랜덤 1집단과 랜덤 2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불안 정도에 대하여 6개월 금융소비자가 경험한 불안 정도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랜덤 1집단을 대상으로 추출된 재무불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재무불안의 하위차원이 재무불안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지, 또한 하위 차원과 세부 항목들이 제대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탐색적 요인 분석 이후 랜덤 2집단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과정은 다른 표본에 의한 분석에서도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이 동일하게 도출되는지를 재검증 하는 과정이며, 정제된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랜덤 1집단과 랜덤 2집단을 합쳐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의 판별 타당도 및 준거 타당도를 검토하고, 최종적인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을 도출하였다.

랜덤 1집단(총 526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각 측정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서로 관련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방법을 선택하였다. 공통요인분석은 각 측정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서로 관련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공통 분산만을 분석에 이용하기 때문에 문항들이 공통적으로 적합한 요인을 추출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이시은, 2017). 공통요인분석 방법을 활용할 때 주축요인추출방법이 활용되는 바 본 연구에서도 주축요인추출법을 사용하였다(임경림, 2018; Widaman, 1993).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사각회전 방식인 직접오블리민을 적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는 요인 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직각 사각회전 방식인 직접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Costello &

Osborne, 2005). 요인 추출 시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한 4개의 하위 차원으로 요인 수를 고정하지 않은 이유는 도출된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과 세부 항목이 각 차원을 잘 설명하며, 의미있게 분류되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재무불안 18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할 때 누적 설명 분산이 50~60%정도 되었을 때 요인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고유값 1이상인 요인들의 누적 설명 분산을 살펴보았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은 총 4개였으며, 이 요인들의 누적 설명분산은 약 63%로 총 4개의 요인으로 재무불안이 구분되었다.

또한 문항 간 응집성을 떨어뜨리거나 공통성(Communality) 값이 0.4 이하이거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0.4이하이거나 특정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그 외의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과 최소한 .10 이상의 차이가 없는 경우 정제해야 하는 문항으로 판단하였다(성태제, 2007; 성은모 외, 2014). 이에 따라 공통성이 0.4 이하인 4개의 문항(예정된 큰 규모의 지출, 은퇴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 새로운 제품에 대한 큰 규모 지출, 팬데믹)을 삭제한 후 총 14개의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4-1]에 제시하였다. KMO 검증은 전체 상관관계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으로 최소 0.50이상이어야 하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모집단의 상관행렬과 단위행렬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값이 유의하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Hutchenson & Sofroniou, 1999).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표준적합도 .875, Bartlett 구형성 검정이 .000으로 모두 유의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재무불안에 대한 KMO와 Bartlett 검정

| KMO와 Bartlett 검정 | | |
|---|---|---|
| 표본 적절성의 KMO 측도 | | .875 |
| Bartlett 구형성 검정 | 근사카이제곱 | 5229.349 |
| | 자유도 | 153 |
| | 유의확률 | .000 |

탐색적 요인분석의 자세한 결과는 [표 4-2]에 나타냈다. 재무불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재무불안은 총 14문항의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63.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4가지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값을 통해 각 문항들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신뢰도 계수가 요인1 .887, 요인2 .886, 요인3 .810, 요인4 .821로 모두 .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1은 자신의 재무 자원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의 소득, 자산, 저축, 생활비 지출 수준과 관련한 지난 6개월 간에 대한 불안이다.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재무자원 불안 차원과 소비지출 불안 차원이 혼합되어 하나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소득, 자산, 저축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재무 자원이다. 생활비 지출 및 카드비용 및 세금 지출은 개인의 재무자원으로부터 사용되는 내용으로 이는 개인의 재무자원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요인 1은 현재 사용 가능한 재무자원과 재무자원을 감소시키는 소비지출행동과 관련한 불안으로 구성되며, 이를 재무자원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부채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 수준가 납부하고 있는 이자 수준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감으로 구성된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소득자산과 소비지출의 세부 항목 중 부채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새롭게 독립적으로 구성된 요인이다. 기존의 재무 설계 측면에서 부채는 금융소비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분류되고,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소비자의 지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부채의 규모나 이자 비용을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지 않고, 부채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요인 2는 부채 불안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3은 거시변화에 대한 불안으로 정책이나 거시 지표들로 구성되며, 실업률과 팬데믹을 제외한 세금이나 시장에 대한 정책변화, 금리변동, 물가변동에 대한 지난 6개월 간의 불안이다. 기존의 4가지 항목에서 실업률이 제외되었고, 구성된 3개의 항목은 시장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근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과다 채무, 주택 매입,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을 때, 거시적인 맥락에서 소비자들은 시장의 변화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팬데믹에 대한 불안도 제외되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팬데믹(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시장의 변동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NBA, 2020). 요인 3의 경우 재무불안 중 금융소비자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안 중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것으로 거시 환경변화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실직, 건강 악화로 인한 소득의 변화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된다. 요인 4에는 거시 환경 요소 중 실업률이 포함되었는데, 실업률은 거시 지표이지만 이는 금융소비자들에게는 거시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의 소득이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4는 개인의 재무자원이나 재무행동과 관련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다. 그 중에서도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요인 4에 대하여 개인 상황변화 불안이라고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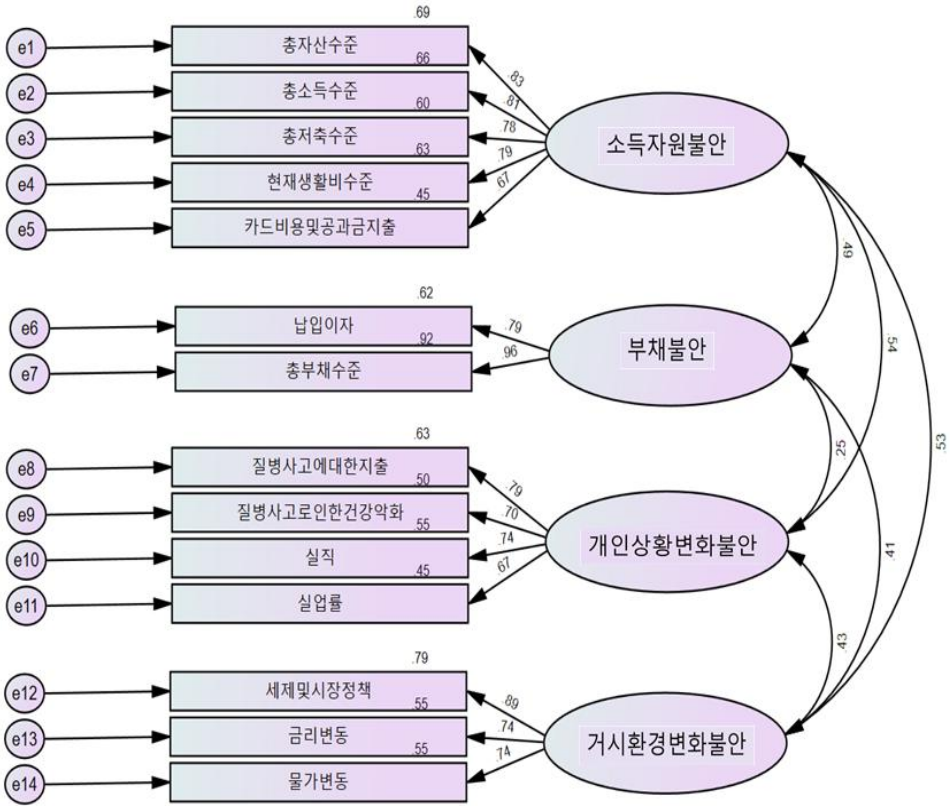
[표 4-2] 재무불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 요인명 | 문항 | 공통성 | 요인 | | | | 신뢰도계수 |
|---|---|---|---|---|---|---|---|
| | | | 1 | 2 | 3 | 4 | |
| 재무자원불안 | 나의 총 자산 수준 | 0.732 | 0.851 | 0.209 | 0.315 | 0.402 | .887 |
| | 나의 총 소득 수준 | 0.636 | 0.792 | 0.322 | 0.374 | 0.445 | |
| | 나의 총 저축 수준 | 0.610 | 0.791 | 0.228 | 0.328 | 0.485 | |
| | 현재 생활비 수준 | 0.635 | 0.775 | 0.347 | 0.308 | 0.369 | |
| | 카드 비용, 공과금 등의 지출 납부 | 0.531 | 0.705 | 0.404 | 0.342 | 0.409 | |
| 부채불안 | 부채에 대한 이자 납부 | 0.874 | 0.344 | 0.931 | 0.392 | 0.210 | .866 |
| | 나의 총 부채 수준 | 0.683 | 0.424 | 0.811 | 0.324 | 0.218 | |
| 거시환경변화불안 | 세금이나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 | 0.803 | 0.335 | 0.329 | 0.895 | 0.332 | .810 |
| | 금리변동 | 0.588 | 0.295 | 0.469 | 0.728 | 0.272 | |
| | 물가변동 | 0.551 | 0.384 | 0.152 | 0.723 | 0.319 | |
| 개인상황변화불안 |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지출 | 0.613 | 0.364 | 0.119 | 0.269 | 0.785 | .821 |
| | 실직 | 0.619 | 0.400 | 0.200 | 0.260 | 0.779 | |
| | 실업률 | 0.463 | 0.385 | 0.093 | 0.232 | 0.709 | |
|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건강 악화 | 0.506 | 0.404 | 0.117 | 0.366 | 0.664 | |
| 고유치 | | | 5.635 | 1.839 | 1.571 | 1.167 | .879 |
| 누적 설명력(%) | | | 37.6 | 48.4 | 57.0 | 63.2 | |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14개의 문항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하고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정제하기 위하여 랜덤 2집단(총 55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이 잠재요인을 얼마나 일관성있게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고, 잠재요인들 간

차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활용하여 관계를 측정하였으며 재무불안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4-2]과 같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볼 수 있는 CFI와 TLI가 0.9 이상인 경우 적합도가 우수하고, .8 이상일 경우 적합한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Bentler &Bonnet, 1980). 분석결과 CFI가 .859, TLI가 .819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재무불안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측정모형의 최대우도모수추정치로 비표준화:표준화회귀계수 (estimate),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기각율(critical ratip: C.R)을 [표 4-3]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30 이상이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며(홍세희, 2000), 모형 내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며 각 요인별 단일 차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3] 재무불안에 대한 최대우도모수 추정치

| 구분 | | | Estimate | | S.E | C.R | F |
|---|---|---|---|---|---|---|---|
| | | | B | β | | | |
| 재무 자원 불안 | 2 | 나의 총 자산 수준 | 1 | 0.701 | | | |
| | 1 | 나의 총 소득 수준 | 1.105 | 0.787 | 0.047 | 23.62 | *** |
| | 3 | 나의 총 저축 수준 | 1.164 | 0.79 | 0.049 | 23.722 | *** |
| | 10 | 현재 생활비 수준 | 1.177 | 0.808 | 0.049 | 24.203 | *** |
| | 11 | 카드 비용, 공과금 등의 지출 납부 | 1.229 | 0.848 | 0.049 | 25.27 | *** |
| 부채 불안 | 13 | 부채에 대한 이자 납부 | 1 | 0.896 | | | |
| | 4 | 나의 총 부채 수준 | 0.942 | 0.857 | 0.045 | 21.14 | *** |
| 거시 환경 변화 불안 | 17 | 세금이나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 | 1 | 0.706 | | | |
| | 16 | 금리변동 | 1.415 | 0.756 | 0.064 | 22.139 | *** |
| | 18 | 물가변동 | 1.449 | 0.894 | 0.061 | 23.58 | *** |
| 개인 상황 변화 불안 | 7 |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지출 | 1 | 0.744 | | | |
| | 6 | 실직 | 1.097 | 0.799 | 0.047 | 23.496 | *** |
| | 14 | 실업률 | 0.794 | 0.656 | 0.04 | 19.676 | *** |
| | 5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건강 악화 | 0.938 | 0.754 | 0.042 | 22.448 | *** |

유의수준 ***p<.001

구성개념과 측정변수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는 구성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는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한다. 수렴타당도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표준화 계수가 .5~.96 사이에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며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5를 넘어야 한다. 또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값이 .70 이상이어야 수렴타당성을 확보한다(Hair et al., 2010). 다만 AVE 값이 .5보다 조금 작아도 수용할 수 있으며 CR값이 .7이상이면 의미가 있으나 .6~.7이어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Fornell and Lacker, 1981).

[표 4-4] 재무불안에 대한 수렴타당성 검증

| 구분 | | | 표준화 계수 | 측정 오차 | AVE | CR 값 |
|---|---|---|---|---|---|---|
| 재무 자원 불안 | 2 | 나의 총 자산 수준 | 0.701 | 0.320 | 0.593 | 0.819 |
| | 1 | 나의 총 소득 수준 | 0.787 | 0.401 | | |
| | 3 | 나의 총 저축 수준 | 0.79 | 0.442 | | |
| | 10 | 현재 생활비 수준 | 0.808 | 0.408 | | |
| | 11 | 카드 비용, 공과금 등의 지출 납부 | 0.848 | 0.560 | | |
| 부채 불안 | 13 | 부채에 대한 이자 납부 | 0.896 | 0.515 | 0.629 | 0.723 |
| | 4 | 나의 총 부채 수준 | 0.857 | 0.392 | | |
| 거시 환경 변화 불안 | 17 | 세금이나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 | 0.706 | 0.224 | 0.592 | 0.731 |
| | 16 | 금리변동 | 0.756 | 0.637 | | |
| | 18 | 물가변동 | 0.894 | 0.427 | | |
| 개인 상황 변화 불안 | 7 |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지출 | 0.744 | 0.593 | 0.450 | 0.642 |
| | 6 | 실직 | 0.799 | 0.745 | | |
| | 14 | 실업률 | 0.656 | 0.611 | | |
| | 5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건강 악화 | 0.754 | 0.723 | | |

[표 4-4]는 수렴타당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모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개념의 AVE값은 개인 환경변화 불안을 제외하고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념신뢰도 역시 소득안정성을 제외하고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득안정성의 경우 AVE값이 0.45로 .50보다는 작게 나타났으나 그 값이 .50에 가까운 수치이고, 개념신뢰도의 경우 .642로 수용가능한 범위이다. 이에 총 14개의 문항이 수렴타당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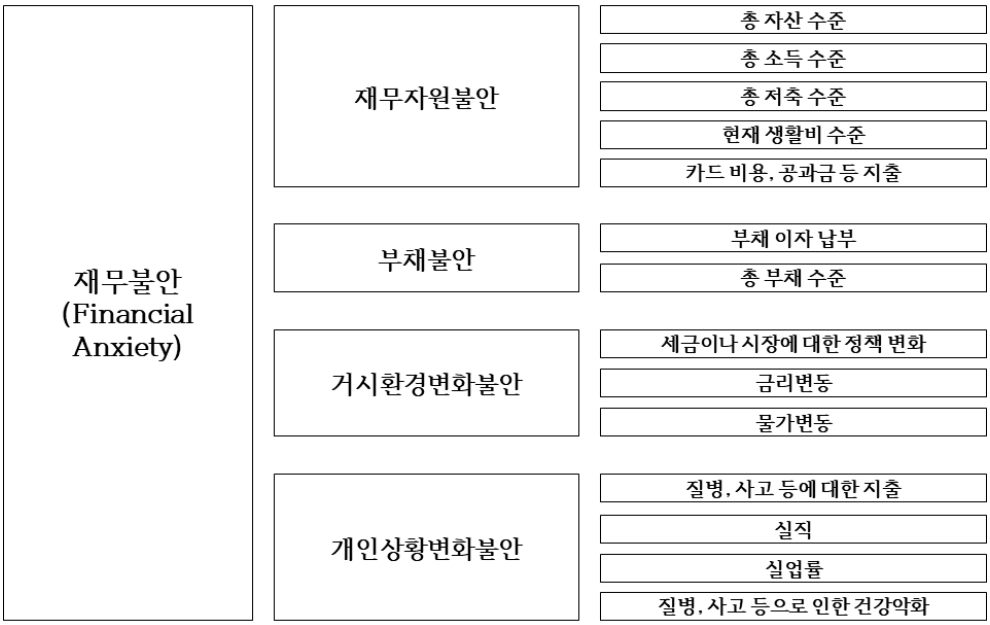
재무불안 문항으로 도출된 모형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Fornell & Larcker(1981)이 제안한 방법으로 두 변인 상관계수와 각 잠재변인인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4-5]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요인 간 상관관계값이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불안을 구성하는 4가지 요인은 서로 다른 요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표 4-5] 재무불안에 대한 요인별 판별타당도

| | 재무자원 불안 | 부채불안 | 거시환경변화 불안 | 개인상황변화 불안 |
|---|---|---|---|---|
| 재무자원불안 | 0.593 | | | |
| 부채불안 | 0.214 | 0.629 | | |
| 거시환경변화 불안 | 0.232 | 0.197 | 0.592 | |
| 개인환경변화 불안 | 0.323 | 0.060 | 0.197 | 0.450 |

*대각선 수치: 루트AVE값, 대각선 아래부분: 상관계수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재무불안의 하위차원은 [그림 4-3]와 같다.




[그림 4-3]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

## 2. 소비자의 재무불안 수준 진단

최종 도출된 재무불안의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재무불안 수준과 하위 차원별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 4-6]에 나타냈다. 응답자들의 재무불안 평균은 3.14로 보통 수준의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불안의 하위차원 별로 살펴보면 거시환경변화 불안이 3.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무자원 불안은 3.30점, 개인 환경변화 불안은 2.83점, 부채 불안은 2.57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거시 환경변화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부채에 대한 불안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에 대한 거시적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난 몇 년간 발생한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정책 변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채 불안이 낮은 이유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에 대한 불안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응답자의 약 50%가 신용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을 63.3%로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부채 미보유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20대 중반부터 40대임을 고려했을 때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채 미보유자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가계 부채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는 부채와 부채 이자를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다(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에 부채 미보유자를 포함한 본 연구의 부채 불안 수준은 부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 수준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부채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의 부채 불안은 3.38점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의 부채 불안 수준은 1.85점으로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의 부채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었다(t-value= -23.007**).

[표 4-6] 재무불안의 전반적인 수준

| 구분 | 재무불안 | 재무자원 불안 | 부채불안 | 거시환경변화 불안 | 개인상황변화 불안 |
|---|---|---|---|---|---|
| 평균 | 3.14 | 3.30 | 2.57 (3.38) | 3.67 | 2.83 |

*() 부채 보유자의 부채불안 수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무불안의 하위차원별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를 [표 4-7]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재무불안은 연령, 직업, 근로유형,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의 재무불안이 20대의 재무불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서비스/판매직, 미취업 직군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재무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유형에 따라서는 임시직과 자영업 및 고용주가 상용직에 비하여 재무불안 수준이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재무불안 수준이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자의 비해 높았고, 대학원 졸업이상의 응답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재무불안 수준이 낮았다.

재무자원 불안은 직업, 최종학력,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직의 재무불안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미취업, 무직 집단의 재무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전문대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와 비교 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재무자원 불안 수준이 높았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재무자원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의 경우 기혼 및 동거 집단에 비해 미혼 집단과 이혼 및 사별 집단의 재무자원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부채 불안의 경우 연령, 근로유형,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대 중후반 집단에 비해 30~40대의 부채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임시직의 재무불안이 상용직과 자영업 및 고용주의 부채 불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기혼 및 동거 집단에서 부채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는 가계나 개인의 소비 및 저축행동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주 연령, 고용상태, 자녀 유무 등의 생애주기 변수에 따라 금융자산 분배 및 저축 행동이 변화한다(Xiao, 196).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가족이 확대되는 단계에서는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 수준은 빈둥지 시기까지 유지된다(Baek & Hong, 2004). 부채불안이 30~40대, 기혼 및 동거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거시 환경변화 불안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30대, 서비스 및 판매직, 임시직, 이혼 및 사별한 응답자의 재무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재무불안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재무불안 하위 차원에서 나타난 양상과 유사하다.

개인 상황변화 불안은 연령, 직업, 근로유형,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0대의 개인 상황변화 불안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의 개인 상황변화 불안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서비스/판매직, 미취업/무직 집단의 개인 상황변화 불안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근로유형 별로 살펴보면 상용직과 자영업 및 고용주의 개인 상황변화 불안이 임시직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개인 상황변화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개인 상황변화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7] 재무불안 하위차원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 집단구분 | | 재무불안 | 재무자원 불안 | 부채불안 | 거시 환경변화 불안 | 개인 상황변화 불안 |
|---|---|---|---|---|---|---|
| 연령 | 만 25~29 | $3.03^{a}$ | 3.31 | $2.10^{a}$ | 3.61 | $2.70^{a}$ |
| | 만 30~39세 | $3.14^{ab}$ | 3.3 | $2.65^{b}$ | 3.74 | $2.73^{a}$ |
| | 만 40~49세 | $3.19^{b}$ | 3.29 | $2.70^{b}$ | 3.65 | $2.96^{b}$ |
| | F-value | $3.49^{*}$ | 0.03 | $17.05^{***}$ | 1.6 | $7.95^{***}$ |
| 직업 | 전문직 | $2.99^{a}$ | $3.12^{a}$ | 2.67 | 3.64 | $2.51^{a}$ |
| | 사무/관리직 | $3.11^{ab}$ | $3.24^{ab}$ | 2.59 | 3.66 | $2.77^{b}$ |
| | 서비스/판매직 | $3.31^{c}$ | $3.41^{bc}$ | 2.63 | 3.81 | $3.14^{c}$ |
| | 미취업/무직 | $3.26^{bc}$ | $3.54^{c}$ | 2.39 | 3.68 | $3.04^{c}$ |
| | F-value | $5.12^{**}$ | $7.76^{***}$ | 1.6 | 0.73 | $1.02^{***}$ |
| 근로 유형 (n=861) | 상용직 | $3.08^{a}$ | 3.22 | $2.62^{ab}$ | 3.66 | $2.71^{a}$ |
| | 임시직 | $3.34^{b}$ | 3.48 | $2.30^{a}$ | 3.79 | $3.36^{b}$ |
| | 자영업/고용주 | $3.27^{ab}$ | 3.40 | $2.81^{b}$ | 3.74 | $3.00^{a}$ |
| | F-value | $4.87^{**}$ | $3.48^{*}$ | 2.35 | 0.70 | $14.33^{***}$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졸업 | $3.37^{c}$ | $3.61^{c}$ | 2.72 | 3.68 | $3.18^{c}$ |
| | 전문대학졸업 | $3.20^{b}$ | $3.34^{b}$ | 2.72 | 3.68 | $2.90^{b}$ |
| | 대학교졸업 | $3.12^{b}$ | $3.28^{b}$ | 2.52 | 3.7 | $2.79^{b}$ |
| | 대학원졸업이상 | $2.90^{a}$ | $3.03^{a}$ | 2.43 | 3.53 | $2.51^{a}$ |
| | F-value | $8.88^{***}$ | $9.14^{***}$ | 1.96 | 1.09 | $10.08^{***}$ |
| 결혼 상태 | 미혼 | 3.11 | $3.35^{ab}$ | $2.22^{a}$ | 3.61 | 2.86 |
| | 기혼 및 동거 | 3.16 | $3.23^{a}$ | $2.91^{b}$ | 3.73 | 2.78 |
| | 이혼 및 사별 | 3.28 | $3.56^{b}$ | $2.41^{a}$ | 3.77 | 3.01 |
| | F-value | 1.31 | $3.61^{*}$ | $37.96^{***}$ | 2.3 | 1.37 |

유의수준 *p<.05, **p<.01, ***p<.001

응답자의 재무자원에 따른 구체적인 재무불안 하위차원 별 불안 수준은 [표 4-8]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재무불안은 예적금상품 보유, 투자상품 보유, 연금상품 보유, 대출 상품 보유, 월평균 소득 수준, 부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예적금상품, 투자상품, 연금상품을 보유한 응답자의 재무불안이 미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출상품 보유자의 재무불안은 미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 구간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재무불안 수준이 낮았으며, 부채가 없는 집단의 재무불안 수준은 부채가 있는 집단에 비해 재무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재무자원불안은 예적금 상품, 투자상품, 연금상품 보유자의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대출상품 보유자의 불안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 수준이 250만원 미만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재무자원 불안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5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재무자원 불안은 낮은 수준이었다. 부채가 없는 집단이 부채가 있는 집단에 비해 재무자원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부채 불안의 경우 예적금 상품 보유자의 불안 수준이 미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 상품 보유자의 불안 수준이 미보유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집단의 부채 불안이 250만원 이상인 집단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부채 미보유 집단의 부채 불안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부채가 9천만원 이상인 집단의 부채 불안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시 환경변화 불안의 경우 대출 상품과 부채수준에 따른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대출상품을 보유한 집단의 거시 환경변화 불안은 3.9점으로 다른 재무불안 하위 차원 불안 수준보다도 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집단의 거시 환경변화 불안 수준이 가장 낮았고, 부채 수준이 9천만원 이상인 집단의 거시 환경변화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거시적 경제 상황의 변화는 가계의 재무자원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석병훈, 2022). 금리의 변동은 가계가 보유한 부채에 대한 이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출 상품 보유 여부와 그

규모가 모두 거시 환경변화 불안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상황변화 불안의 경우 투자상품 보유자, 보험상품 보유자, 연금상품 보유자의 재무불안이 미보유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집단이 250만원 이상인 집단들에 비하여 개인 상황변화 불안이 높은 수준이었다. 대출 상품 보유 여부와 부채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예적금 상품, 투자 상품, 연금 상품은 자산을 증식시키고, 미래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상품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재무 자원을 축적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예적금 상품, 투자 상품, 연금 상품 보유자의 경우 재무 자원 불안 수준이 낮으며, 개인의 실직이나 사고, 은퇴 등의 개인의 환경변화에도 미보유자에 비해 대비가 되어 있어 불안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의 경우 위험을 대비하는 금융상품으로 이는 개인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에 의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저축성 보험을 보유한 경우 자산 축적의 역할도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은퇴 등을 대비한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 상품 보유가 개인 환경변화 불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대출 상품 보유자와 부채 수준이 높은 집단의 전반적인 재무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대출 상품의 경우 미래의 재무 자원을 현재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상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래 재무 자원을 이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자를 납부한다. 이 이자는 시장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 화폐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예적금, 투자, 보험, 연금 등의 상품은 자산을 축적하는 개념으로 거시 환경변화에 따라 손실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의 재무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 이자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 가계의 재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 상품 보유와 높은 부채 수준은 거시 환경변화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8] 재무불안 하위차원별 재무자원 특성

| 집단구분 | | 재무불안 | 재무자원 불안 | 부채불안 | 거시 환경변화 불안 | 개인 상황변화 불안 |
|---|---|---|---|---|---|---|
| 예적금 상품 | 보유 | 3.11 | 3.26 | 2.49 | 3.67 | 2.82 |
| | 미보유 | 3.33 | 3.57 | 3.09 | 3.70 | 2.87 |
| | t-value | -3.235** | -3.854*** | -5.062*** | -0.255 | -0.586 |
| 투자 상품 | 보유 | 3.09 | 3.23 | 2.56 | 3.68 | 2.75 |
| | 미보유 | 3.26 | 3.47 | 2.57 | 3.66 | 3.02 |
| | t-value | -3.248** | -3.976*** | -0.133 | 0.213 | -4.108*** |
| 보험 상품 | 보유 | 3.13 | 3.27 | 2.61 | 3.69 | 2.79 |
| | 미보유 | 3.17 | 3.37 | 2.43 | 3.64 | 2.94 |
| | t-value | -0.809 | -1.615 | 2.03* | 0.74 | -2.173* |
| 연금 상품 | 보유 | 3.05 | 3.14 | 2.60 | 3.64 | 2.72 |
| | 미보유 | 3.18 | 3.37 | 2.55 | 3.69 | 2.88 |
| | t-value | -2.763** | -4.094*** | 0.562 | -0.85 | -2.433* |
| 대출 상품 | 보유 | 3.38 | 3.48 | 3.38 | 3.90 | 2.87 |
| | 미보유 | 2.93 | 3.14 | 1.85 | 3.48 | 2.79 |
| | t-value | 10.432*** | 6.400*** | 23.007*** | 7.585*** | 1.267 |
| 월평균 소득 수준 | 250만원미만 | $3.26^{c}$ | $3.54^{c}$ | $2.38^{a}$ | 3.70 | $3.01^{b}$ |
| | 500만원미만 | $3.12^{b}$ | $3.24^{b}$ | $2.70^{b}$ | 3.69 | $2.75^{a}$ |
| | 500만원이상 | $2.91^{a}$ | $2.86^{a}$ | $2.64^{b}$ | 3.58 | $2.59^{a}$ |
| | F-value | 14.18*** | 39.48*** | 6.81** | 1.14 | 13.74*** |
| 신용 부채 수준 | 없음 | $2.93^{a}$ | $3.14^{a}$ | $1.85^{a}$ | $3.48^{a}$ | 2.79 |
| | 9000만원미만 | $3.37^{b}$ | $3.49^{b}$ | $3.28^{b}$ | $3.85^{b}$ | 2.90 |
| | 9000만원이상 | $3.41^{b}$ | $3.44^{b}$ | $3.70^{c}$ | $4.04^{c}$ | 2.75 |
| | F-value | 54.50*** | 20.66*** | 274.86*** | 30.93*** | 1.92 |

유의수준 *p<.05, **p<.01, ***p<.001

## 제 2 절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재무적, 심리적 요인들이 재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4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신의 재무자원에 대한 인지, 재무 지식, 재무 자원이 재무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연구에서 검증되어왔다(Shapiro & Burchell, 2012; Archuleta et al.,2013; Bennett et al, 2015; Britt et al, 2016; Kadoya et al., 2018; Portter et al., 2020;  Sachin et al., 2021).

Potter et al.(2020)연구를 보면 소비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재무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현재 자신의 재무관리능력, 주관적 재무지식, 동료와의 재무상황 비교의 요인들이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는 이 연구에서 동료와의 비교, 그리고 재무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등의 심리적인 자기개념 요인이 개인의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며, 이에 대한 심리적 자기개념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정책의 변화와 투자 시장 활황을 이유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이나 투자 자금 확보 등 금융소비자들의 투기적 재무행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재무행동에는 타인의 재무이익 획득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타인의 재무이익 획득과 나의 상황과의 비교 등의 이유가 자리하고 있었다(유현선, 2021, 김명수, 2022). 최근 금리 상승, 투자 시장 위축, 경제 위기에 대한 전망 등에 따라 기존의 과도한 대출, 이를 이용한 투기적 투자행동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김영대, 2017; 이동준, 한창근, 2021; 오지민, 김태민, 2021; 임상빈, 2022). 이러한 측면에서 Potter et al.(2020)의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재무

자원과 심리적 요인이 재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재무 지식, 재무 자산, 심리적 요인의 순서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 주거형태, 최종학력, 결혼상태, 가구구성원 수, 자녀 수가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2단계에서는 객관적 재무 지식과 주관적 재무지식인 재무지식이 추가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월평균 소득과 부채가 포함된 재무 자원이 추가되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태도, 비교 성향, 하향 비교로 구성된 심리적 요인이 추가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요인이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9]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단계별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모형 4개 모두 F값이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3이상, VIF값은 모두 3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1.994로 기준값이 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간 단계에 따른 상대적 영향력 평가를 살펴보는 분석으로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1단계의 수정된 $R^2$값은 .034로 3.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수정된 $R^2$값은 .324로 .052로 1단계에 비해 약 1.9% 증가한 5.2%의 설명력을 갖는다. 모형3의 수정된 $R^2$값은 .184로 총 설명력은 18.4%이고 2단계에 비해 13.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4의 수정된 $R^2$값은 .324로 총 설명력이 32.4%이고 3단계 모형에 비하여 13.9%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자원과 금융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단계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직업, 최종학력, 자녀의 수가 재무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취업 및 무직인 경우 재무불안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도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재무불안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형 1의 경우 설명력이 3.4%로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이 재무불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무지식을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최종학력, 자녀의 수, 재무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중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은 모형 1에서와 같이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 역시 증가할수록 재무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주관적 재무지식이 증가할수록 재무불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소득과 부채 규모를 포함한 재무자원 변수를 추가한 모형 3에서는 연령, 직업, 최종학력, 재무지식, 재무자원이 재무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무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 및 무직은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재무지식이 높을수록 재무불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형2에 비해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모형 2 β= -0.14, 모형 3 β= -0.11).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월평균소득이 높은 경우 재무불안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월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재무불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의 경우 9천만원 미만 보유 수준을 기준으로 부채가 없는 것은 재무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채가 9천만원 이상인 경우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채 규모가 증가할수록 재무불안의 수준도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을 추가한 모형 4에서는 연령, 직업, 최종학력,

재무지식, 재무자원, 심리적 요인이 재무불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모형 3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미취업 및 무직의 상태는 재무불안을 증가시키며, 대학원 이상 졸업의 학력은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형 3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재무지식이 증가할수록 재무불안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모형 3에서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집단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월평균소득이 높은 경우 재무불안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월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재무불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의 경우도 모형 3과 마찬가지로 9천만 원 미만 보유 수준을 기준으로 부채가 없는 것은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채가 9천만원 이상인 경우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채 규모가 증가할수록 재무불안의 수준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리적 요인의 경우 미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재무불안의 수준은 낮아졌고,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높아질수록 재무불안의 수준도 높아졌다. 타인에 비해 자신의 재무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하향비교의 경우 자신의 재무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재무불안의 수준은 낮아졌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단계가 진행되면서 변수들의 영향력에 변화가 생기면서 최종적으로는 연령, 미취업 및 무직의 상태, 대학원 이상의 최종학력, 재무자원, 심리적 요인이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객관적 재무지식과 주관적 재무지식은 재무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나 유의성이 혼재되어있다(Archuleta et al., 2013; Britt et al., 2016; Kadoya et al., 2018; Potter et al.,2020).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객관적, 주관적 재무지식 모두 재무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재무자산과 심리적 요인을 재무불안의 설명변수로 추가함에 따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약 13%p씩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자원과 심리적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소득 및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낮고, 부채규모가 클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재무불안의 수준이 낮아지고, 부채규모가 증가할수록 재무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Shapiro & Burchell, 2012; Archuleta et al., 2013, Bennett et al, 2015, Britt et al, 2015; Roll et al., 2016, Kadoya et al., 2018; Sachin et al., 2021).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과의 비교성향은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Potter et al.(202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하향비교의 경우 재무불안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나 일반적인 불안에 있어서 하향비교는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Amoroso & Walters, 1969; Lemyre & Smith, 1985).

이를 통해 우리는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내외부의 다양한 조건으로 형성되는 요인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질적인 심리적 요인과 재무불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교성향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내 주변 사람들과의 재무상황 비교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소비자들이 처한 환경은 비교의 범위가 내 주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하다. 대중 매체는 물론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금융소비자는 정보도 쉽게 탐색할 수 있지만, 쉽게 타인의 편집된 재무 상황에 노출된다(이성준, 이효성, 2016; 김희삼, 2014; 오지민, 김태민, 2021). 이는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쉽게 타인과의 비교 상황에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표 4-9]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변인 | | | 모형 1 | | 모형 2 | | 모형 3 | | 모형 4 | |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상수) | | | 2.92*** | | 3.22*** | | 3.14*** | | 3.02** | |
| 성별(준거:남자) | | | 0.00 | 0.00 | 0.03 | 0.02 | 0.04 | 0.03 | 0.04 | 0.02 |
| 연령 | | | 0.01 | 0.06 | 0.01 | 0.05 | 0.01** | 0.10 | 0.01*** | 0.12 |
| 거주지 (준거: 수도권) | 광역시 | | -0.02 | -0.01 | -0.02 | -0.01 | -0.07 | -0.04 | -0.08 | -0.05 |
| | 시 | | -0.10 | -0.06 | -0.12 | -0.07 | -0.14 | -0.08 | -0.10 | -0.06 |
| | 군 | | 0.02 | 0.01 | 0.03 | 0.01 | -0.03 | -0.01 | -0.08 | -0.03 |
| 주거 형태 (준거: 자가) | 전세 | | -0.01 | 0.00 | -0.02 | -0.01 | -0.03 | -0.01 | -0.02 | -0.01 |
| | 월세 | | 0.10 | 0.05 | 0.10 | 0.04 | 0.09 | 0.04 | 0.07 | 0.03 |
| | 기타거주 | | 0.01 | 0.00 | 0.01 | 0.00 | 0.03 | 0.01 | 0.06 | 0.01 |
| 직업 (준거: 사무/관리직) | 전문직 | | -0.10 | -0.04 | -0.09 | -0.04 | -0.10 | -0.04 | -0.06 | -0.02 |
| | 서비스/판매직 | | 0.14 | 0.05 | 0.16 | 0.06 | 0.17* | 0.06 | 0.13 | 0.05 |
| | 미취업/무직 | | 0.14* | 0.07 | 0.12 | 0.06 | 0.15** | 0.08 | 0.13* | 0.07 |
| 최종학력 (준거:대학교 졸업) | 고등학교졸업 | | 0.20** | 0.09 | 0.17* | 0.08 | 0.08 | 0.04 | 0.11 | 0.05 |
| | 전문대졸업 | | 0.06 | 0.03 | 0.05 | 0.02 | -0.02 | -0.01 | -0.03 | -0.02 |
| | 대학원이상졸업 | | -0.23** | -0.10 | -0.22** | -0.09 | -0.20** | -0.08 | -0.14* | -0.06 |
| 결혼상태 (준거: 기혼 및 동거) | 미혼 | | 0.04 | 0.02 | 0.02 | 0.02 | 0.05 | 0.04 | 0.01 | 0.00 |
| | 이혼 및 사별 | | 0.02 | 0.01 | 0.01 | 0.00 | -0.04 | -0.01 | -0.02 | 0.00 |
| 가구구성원 수 | | | -0.03 | -0.05 | -0.03 | -0.05 | -0.01 | -0.01 | 0.00 | 0.00 |
| 자녀 수 | | | 0.09* | 0.11 | 0.09* | 0.11 | 0.07 | 0.08 | 0.04 | 0.05 |
| 재무 지식 | 객관적 재무지식 | | | | 0.02 | 0.03 | 0.01 | 0.02 | 0.02 | 0.04 |
| | 주관적 재무지식 | | | | -0.12*** | -0.14 | -0.09*** | -0.11 | 0.00 | 0.00 |
| 재무 자원 | 월평균 소득 | 0-250만원미만 | | | | | 0.20*** | 0.14 | 0.18** | 0.12 |
| | | 500만원 이상 | | | | | -0.28*** | -0.14 | -0.20** | -0.10 |
| | 부채 규모 | 없음 | | | | | -0.48*** | -0.32 | -0.38*** | -0.26 |
| | | 9천만원 이상 | | | | | 0.12* | 0.05 | 0.15*** | 0.07 |
| 심리적 요인 | 미래에 대한 태도 | | | | | | | | -0.08** | -0.10 |
| | 비교성향 | | | | | | | | 0.17*** | 0.26 |
| | 하향비교 | | | | | | | | -0.20** | -0.28 |
| $R^2$ | | | 0.051 | | 0.07 | | 0.203 | | 0.342 | |
| Adj.$R^2$ | | | 0.034 | | 0.052 | | 0.184 | | 0.324 | |
| $\Delta R^2$ | | | 0.051 | | 0.019 | | 0.133 | | 0.139 | |
| $\Delta F$ | | | 3.069*** | | 10.641*** | | 10.915*** | | 72.044*** | |

유의수준 *p<.05, **p<.01, ***p<.001

## 제 3 절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화

본 절에서는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화를 진행한 후, 각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집단들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1.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 분류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화를 위하여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재무불안의 재무자원 불안, 부채 불안, 거시 환경변화 불안, 개인 상황변화 불안의 4가지 요인의 요인 점수를 기준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무불안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유형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집단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집단별 재무불안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는 [표 4-10]와 같다.

집단 1은 27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분산분석 결과 모든 재무불안과 관련하여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집단 1의 전반적인 재무불안의 수준은 2.19점이다. 이 집단은 물가변동에 대한 불안 외에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불안의 수준이 3점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집단에서 부채에 대한 불안과 실업과 관련한 불안은 1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집단 1에 대해서는 저불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29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0%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 2의 전반적인 재무불안 수준은 3.18점이다. 이 집단의 경우 개인 상황변화 불안을 제외한 재무자원 불안, 부채 불안, 거시 환경변화 불안이 모두 3점대였다. 이 중 거시 환경변화 불안은 3점대 후반으로 다른 하위 차원의 불안에 비해 거시 환경변화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실업, 질병 및 사고 등에 대한 개인 상황변화에 대한 불안은 모두 2점 대로 개인 상황이 안정적이거나 혹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집단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제 재무불안 평균 수준이 3.14점이고, 각 항목의 점수를 전체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이 집단의 불안의 수준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전체 평균에 가장 가까웠다. 이에 집단 2에 대하여 평균 불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전체 응답자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59명이다. 집단 3의 전반적인 재무불안 수준은 3.31점으로 전반적인 재무 불안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 집단은 부채 불안이 1점대로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 불안의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부채 불안을 제외한 재무자원 불안, 거시 환경변화 불안, 개인 환경변화 불안은 모두 3점대이다. 특히 물가변동, 자산 수준, 소득수준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물가변동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항목으로 이를 제외 하면 집단 3은 자신의 자산 수준과 소득 수준에 대하여 불안을 높게 느끼고 있다. 이에 집단 3은 소득자산 불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4는 223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2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재무불안 수준이 4.07점으로 전반적인 재무불안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무자원 불안, 부채 불안, 거시 환경변화 불안의 경우 모두 4점 대로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4는 고불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재무불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유형화 했을 때, 각 집단 내에서 물가변동에 대한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물가 변동은 가계의 소비지출의 규모와 비목 구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숙향, 김혜선, 2004). 최근 상승세인 물가상승률을 금융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불안 집단과 소득자산 불안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에 대한 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저불안 집단은 전반적인 재무불안 수준이 낮은 반면, 소득자산 불안 집단은 부채 불안의 수준만 낮고, 전반적인 재무불안 수준은 보통이상이다. 불안에 따라 집단 간 유사성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별 금융소비자 특성 차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10] 재무불안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류

단위: 재무불안 평균(군집중심값)

| 구분 | | 집단 1<br>저불안<br>집단 | 집단 2<br>평균 불안<br>집단 | 집단 3<br>소득자산<br>불안 집단 | 집단 4<br>고불안<br>집단 | F값 |
|---|---|---|---|---|---|---|
| | | n=277<br>26.3% | n=295<br>28.0% | n=259<br>24.6% | n=223<br>21.2% | |
| 재무자원 불안 | 나의 총 자산 수준 | 2.49 | 3.25 | 3.83 | 4.20 | 191.050*** |
| | 나의 총 소득 수준 | 2.32 | 3.13 | 3.81 | 4.15 | 249.762*** |
| | 나의 총 저축 수준 | 2.47 | 3.38 | 3.59 | 4.26 | 177.870*** |
| | 현재 생활비 수준 | 2.30 | 3.16 | 3.56 | 4.13 | 232.890*** |
| | 카드 비용, 공과금 등의 지출 납부 | 2.25 | 3.32 | 3.29 | 4.05 | 195.995*** |
| 부채 불안 | 부채에 대한 이자 납부 | 1.48 | 3.41 | 1.46 | 4.02 | 652.890*** |
| | 나의 총 부채 수준 | 1.54 | 3.35 | 1.44 | 4.17 | 664.210*** |
| 거시 환경변화 불안 | 세금이나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 | 2.68 | 3.72 | 3.71 | 4.21 | 130.775*** |
| | 금리변동 | 2.42 | 3.93 | 3.41 | 4.27 | 169.283*** |
| | 물가변동 | 3.31 | 3.96 | 4.34 | 4.48 | 108.939*** |
| 개인 상황변화 불안 |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지출 | 1.99 | 2.68 | 3.39 | 3.92 | 205.615*** |
| | 실직 | 1.61 | 2.16 | 3.49 | 3.65 | 274.436*** |
| | 실업률 | 1.67 | 2.45 | 3.70 | 3.75 | 310.218*** |
|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건강 악화 | 2.15 | 2.59 | 3.36 | 3.64 | 123.436*** |
| 재무불안 평균 | | 2.19 | 3.18 | 3.31 | 4.07 | |

유의수준 ***p<.001

## 2. 금융소비자 유형별 소비자 특성 차이

재무불안에 따라 분류된 금융소비자 집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Duncan의 사후검정을 함께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직업, 근로유형,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 수, 자녀 수, 객관적 재무지식, 주관적 재무지식, 보유 금융상품, 월평균소득, 부채 수준, 미래에 대한 태도, 비교성향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재무 지식, 재무 자원, 심리적 요인 등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별 소비자 집단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각 금융소비자 유형 별 차이는 [표 4-11]으로 정리했다. 각 유형별로 연령, 직업, 근로유형, 결혼 여부, 자녀수, 거주형태, 교육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저불안 집단의 경우 주로 30~40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로 상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다른 집단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았다. 미혼의 비중이 높고,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분포가 높았다.

평균 불안 집단도 주로 30~40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집단의 비해 40대의 비중이 높았다. 주로 자가 및 전세의 거주 형태 비중이 높았으며, 사무 및 관리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 및 동거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자녀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비중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소득자산 불안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2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월세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다. 다른 집단에 비해 미취업자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직 종사자의 비중도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로 미혼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집단이다.

고불안 집단의 경우 40대의 구성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

았다. 거주형태에서도 월세 형태의 거주 형태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었다. 직업의 경우 사무관리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중과 미취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근로 형태의 경우에도 자영업 및 고용주 형태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및 동거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비자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 집단별로 전체 응답자의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저불안 집단의 경우 30~40대, 평균 불안 집단와 고불안 집단의 경우 40대, 소득자산 불안 집단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집단 간 구분이 되었다. 또한 저불안 집단의 경우 전문직의 분포가 높았고, 평균 불안 집단의 경우 사무 및 관리직의 분포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자산 불안 집단과 고불안 집단의 경우 미취업자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연령이나 직업, 근로유형 등은 금융소비자들의 소득 수준과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차이로 인해 각 집단의 불안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Archuleta et al., 2013; Roll et al., 2016; Kadoya, Khan, Hamada & Dominguez, 2018; Potter et al., 2020)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4-11] 금융소비자 재무불안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징 차이

단위:명(%)

| 집단구분 | | 집단 1 저불안 집단 n=277 | | 집단 2 평균 불안 집단 n=295 | | 집단 3 소득자산 불안 집단 n=259 | | 집단 4 고불안 집단 n=223 | | $\chi^2$값 |
|---|---|---|---|---|---|---|---|---|---|---|
| 단위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
| 연령 | 만25~29세 | 67 | 24.2 | 43 | 14.6 | 71 | 27.4 | 28 | 12.6 | 26.95*** |
| | 만30~39세 | 101 | 36.5 | 115 | 39.0 | 80 | 30.9 | 83 | 37.2 | |
| | 만40~49세 | 109 | 39.4 | 137 | 46.4 | 108 | 41.7 | 112 | 50.2 | |
| 거주 형태 | 자가 | 171 | 61.7 | 193 | 65.4 | 177 | 68.3 | 125 | 56.1 | 23.42** |
| | 전세 | 64 | 23.1 | 68 | 23.1 | 32 | 12.4 | 57 | 25.6 | |
| | 월세 | 33 | 11.9 | 30 | 10.2 | 40 | 15.4 | 34 | 15.2 | |
| | 기타 | 9 | 3.2 | 4 | 1.4 | 10 | 3.9 | 7 | 3.1 | |
| 직업 | 전문직 | 38 | 13.7 | 33 | 11.2 | 13 | 5.0 | 19 | 8.5 | 35.36*** |
| | 사무/관리직 | 182 | 65.7 | 206 | 69.8 | 155 | 59.8 | 133 | 59.6 | |
| | 서비스/판매직 | 17 | 6.1 | 18 | 6.1 | 24 | 9.3 | 23 | 10.3 | |
| | 미취업 | 40 | 14.4 | 38 | 12.9 | 67 | 25.9 | 48 | 21.5 | |
| 근로 유형 | 상용직 | 219 | 79.1 | 236 | 80.0 | 151 | 58.3 | 146 | 65.5 | 36.61*** |
| | 임시직 | 9 | 3.2 | 10 | 3.4 | 31 | 12.0 | 13 | 5.8 | |
| | 자영업/고용주 | 9 | 3.2 | 11 | 3.7 | 10 | 3.9 | 15 | 6.7 | |
| 교육 수준 | 고등학교졸업 | 18 | 6.5 | 28 | 9.5 | 44 | 17.0 | 38 | 17.0 | 32.38*** |
| | 전문대학졸업 | 35 | 12.6 | 48 | 16.3 | 38 | 14.7 | 39 | 17.5 | |
| | 대학교졸업 | 180 | 65.0 | 187 | 63.4 | 157 | 60.6 | 128 | 57.4 | |
| | 대학원졸업이상 | 44 | 15.9 | 32 | 10.8 | 20 | 7.7 | 18 | 8.1 | |
| 결혼 상태 | 미혼 | 143 | 51.6 | 104 | 35.3 | 175 | 67.6 | 86 | 38.6 | 73.50*** |
| | 기혼 및 동거 | 128 | 46.2 | 184 | 62.4 | 75 | 29.0 | 132 | 59.2 | |
| | 이혼 및 사별 | 6 | 2.2 | 7 | 2.4 | 9 | 3.5 | 5 | 2.2 | |
| 자녀 수 | 없음 | 175 | 63.2 | 150 | 50.8 | 199 | 76.8 | 107 | 48.0 | 56.22*** |
| | 1명 | 46 | 16.6 | 60 | 20.3 | 22 | 8.5 | 48 | 21.5 | |
| | 2명 이상 | 56 | 20.2 | 85 | 28.8 | 38 | 14.7 | 68 | 30.5 | |

유의수준 **p<.01, ***p<.001

금융소비자 유형별 재무지식 수준 차이를 [표 4-12]로 정리했다. 객관적 재무지식의 경우 모든 집단이 총 8점 만점인 측정 항목에 대하여 모두 5점 대로 각 집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재무지식의 경우 모두 2점대로 모든 집단에서 스스로의 주관적 재무지식 수준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저불안 집단과 평균 불안 집단이 소득자산 불안 집단과 고불안 집단에 비해 주관적 재무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객관적 재무지식과 주관적 재무지식은 재무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나 유의성이 혼재되어있다(Archuleta et al., 2013; Britt et al., 2016; Kadoya et al., 2018; Potter et al.,2020). 앞서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객관적 재무지식과 주관적 재무지식은 모두 재무불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에서 모형 2와 모형 3에서 주관적 재무지식은 유의하게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심리적 요인이 회귀 분석에 투입되면서 주관적 재무지식의 영향력이 감소한 결과이다. 재무불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주관적 재무지식은 각 집단 별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을 살펴볼 때에는 전반적인 재무불안의 수준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특징에 따른 구체적인 세분화를 통해 각 집단별 특징과 영향요인을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4-12] 금융소비자 재무불안 유형별 재무 지식 차이

| 집단구분 | 저불안 집단 | 평균 불안 집단 | 소득자산 불안 집단 | 고불안 집단 | F값 |
|---|---|---|---|---|---|
| 객관적 재무지식 (평균 5.2점/ 8점 만점) | 5.18 | 5.16 | 5.13 | 5.32 | 0.5260 |
| 주관적 재무지식 (평균 2.27) | 2.87 b | 2.83 b | 2.63 a | 2.62 a | 5.539** |

유의수준 **p<.01

재무자원별 금융소비자 유형별 차이는 [표 4-13]로 정리했다. 월평균 소득 수준과 부채수준에서 각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은 저불안 집단과 평균 불안 집단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자산 불안 집단과 고불안 집단이 낮게 나타탔다. 부채 수준은 고불안 집단, 평균 불안 집단, 저불안 집단, 소득자산 불안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부채수준을 함께 살펴보면 저불안 집단은 소득수준은 높고 부채수준은 응답자 평균 이하이다. 이들은 가용할 수 있는 재무 자원이 충분하고,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다. 또한 이들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소득 수준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들이 수립한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에 의한 대출 상품 보유 상태일 수 있다.

평균 불안 집단은 월 평균 소득수준도 높고, 부채 수준도 높은 집단이다. 또한 이들의 금융상품 보유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저축, 투자, 위험, 은퇴, 부채 관련 상품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구입, 자녀학자금, 양육비 등 자신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부채를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집단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재무포트폴리오로 다양한 금융상품 보유를 통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전 생애에 걸친 안정적인 재무자원 분배를 위해 이와 관련한 거시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소득자산 불안 집단은 소득 수준도 낮고, 부채수준도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집단은 주 연령대가 20대이고, 미취업자의 비중도 높았다.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부채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금융시장에서의 부채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집단은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지출을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 집단은 부채에 대한 불안 수준은 매우 낮지만, 자신의 재무 자원이나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다. 이 집단의 재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 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인적,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소득 수준을 벗어나는 부채는 재무적 불안의 요인이지만, 부채 보유를 통해 전 생애를 걸쳐

개인의 재무자원 배분을 통해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무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재무설계나 재무관리에 대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이다.

고불안 집단은 월평균 소득수준이 낮은 것에 비해 부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이다. 특징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집단은 자영업이나 고용주의 비중이 많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용 자원에 비해 부채수준이 높고, 재무적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유 수준도 낮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자신의 재무자원과 부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변화, 소득 안정성 등의 모든 재무불안의 하위차원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표 4-13] 금융소비자 재무불안 유형별 재무자원 차이

| 집단구분 | 저불안 집단 | 평균 불안 집단 | 소득자산 불안 집단 | 고불안 집단 | χ2 또는 F값 |
|---|---|---|---|---|---|
| 월 평균 소득수준 (평균 334만원) | 394.1 b | 391.4 b | 299.8 a | 299.8 a | 10.864*** |
| 신용 부채 수준 (평균 2,313만원) | 1603.6 b | 4158.6 c | 301.4 a | 5449.9 d | 36,584*** |

유의수준 ***p<.001

심리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서 각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결과를 [표 4-14]에 나타냈다. 미래에 대한 태도는 저불안 집단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소득자산 불안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불안과 부적인 관계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Potter et al., 2020). 비교성향은 저불안 집단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소득자산 불안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재무상황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하향 비교에 있어서 고불안 집단가 자신의 재무상태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저불안 집단은 자신의 재무상황을 타인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 역시 타인과의 비교성향, 타인에 비해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하향 비교가 재무불안에 각각 부적이고,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Britt et al., 2016; Potter et al. 2020).

[표 4-14] 금융소비자 재무불안 유형별 심리적 요인 차이

| 집단구분 | 저불안 집단 | 평균 불안 집단 | 소득자산 불안 집단 | 고불안 집단 | F값 |
|---|---|---|---|---|---|
| 미래에 대한 태도 (평균 2.91) | 3.14 c | 2.98 b | 2.67 a | 2.85 b | 11.360*** |
| 비교성향 (평균 2.85) | 2.49 a | 2.90 b | 2.91 b | 3.18 c | 17,443*** |

유의수준 ***p<.001

금융소비자들의 재무 자원 중 금융상품 보유 여부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R을 이용한 K-mode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금융상품 보유 여부에 따라서 [표 4-15]와 같이 응답자가 분류되었다. 집단 1은 정기 예적금 상품과 보험 상품을 보유한 집단이다. 이 집단은 손실 위험이 없는 정기 예적금과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를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집단 2는 정기 예적금 상품과 투자 상품을 보유한 집단이다. 이 집단은 손실위험이 없는 정기 예적금과 손실위험을 내재하는 투자 상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집단 3의 경우 연금상품을 제외한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집단 4는 모든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 4-15] 금융소비자 금융상품 보유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

| 구분 | 집단 1 | 집단 2 | 집단 3 | 집단 4 |
|---|---|---|---|---|
| | n=271<br>25.7% | n=234<br>22.2% | n=271<br>25.7% | n=278<br>26.4% |
| 정기예적금상품 | ○ | ○ | ○ | ○ |
| 투자상품 | × | ○ | ○ | ○ |
| 보험상품 | ○ | × | ○ | ○ |
| 연금상품 | × | × | × | ○ |
| 대출상품 | × | × | ○ | ○ |

금융상품 보유별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수준의 차이를 [표 4-16]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인 재무불안 수준은 집단 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3의 경우 연금 상품을 제외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변화를 제외한 모든 재무불안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1과 집단 2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의 종류이 다양성과 규모 측면에서 재무자원 수준 불안이 높게 나타나며, 부채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불안의 다른 하위 불안에 비하여 부채 불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타 집단에 비하여 개인상황변화에 대한 불안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4의 경우 전반적인 재무불안의 수준도 낮게 나타났고, 재무자원 수준 불안, 거시 환경변화 불안, 개인 상황변화 불안 모두 불안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이 집단도 부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바, 집단 1과 집단 2에 비해서 부채 불안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표 4-16] 금융상품 보유별 재무불안 수준 차이

| 집단구분 | | 집단 1 | 집단 2 | 집단 3 | 집단 4 | F값 |
|---|---|---|---|---|---|---|
| 재무불안 (평균 3.14) | | 3.18 a | 3.08 a | 3.22 b | 3.07 a | 2.758* |
| | 재무자원수준불안 | 3.40 b | 3.32 b | 3.36 b | 3.13 a | 5.058** |
| | 부채불안 | 2.37 b | 2.09 a | 2.99 d | 2.75 c | 25.224*** |
| | 거시환경변화불안 | 3.65 a | 3.55 a | 3.82 b | 3.66 a | 3.626* |
| | 개인상황변화불안 | 2.97 b | 2.92 b | 2.71 a | 2.71 a | 5.252** |

유의수준 *p<.05, **p<.01, ***p<.001

### 3. 금융소비자 유형별 재무관리행동 차이

재무불안에 따라 유형화한 4개의 집단별로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재무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이 각 집단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표 4-17]에 나타내었다. 재무관리행동은 평균 3.32점이고, 소득자산 불안집단의 재무관리행동 점수는 3.2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불안 집단의 재무관리행동이 3.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출관리행동은 고불안 집단이 3.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저불안 집단이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출관리행동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0점으로 응답자들은 스스로의 지출관리행동이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관리행동의 경우 평균 2.84점이었다. 고불안 집단, 평균 불안 집단,

소득자산 불안집단의 투자관리행동 수준은 낮았으며 저불안 집단의 투자관리행동이 유의하게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의 투자관리 행동 수준도 3.01점으로 응답자 전반이 투자관리행동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부채관리행동은 평균 3.64점이었다. 부채관리행동은 고불안 집단, 저불안 집단, 평균 불안 집단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 세 집단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부채 보유에 따라 부채관리행동을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위험관리행동은 평균 3.64점으로 재무관리행동의 하위 차원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평균 불안 집단과 고불안 집단, 저불안 집단의 위험관리행동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불안이 낮은 사람이 건강한 재무관리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일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거시변화 불안이나 전반적인 불안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불안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이 비슷하다. 또한 소득자산 불안 집단의 경우 본인 소득 내에서 소비지출 행동을 하는 상황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보유가 어려운 상황으로 위험관리행동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재무관리행동과 재무불안의 영향의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재무관리행동과 재무불안 간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7] 금융소비자 재무불안 유형별 재무관리 행동 차이

| 집단구분 | | 저불안 집단 | 평균 불안 집단 | 소득자산 불안 집단 | 고불안 집단 | F값 |
|---|---|---|---|---|---|---|
| 재무관리행동 (평균 3.32) | | 3.43 b | 3.32 a | 3.25 a | 3.28 a | 4.803** |
| | 지출관리행동 (평균 3.24) | 3.40 c | 3.19 a b | 3.26 b | 3.10 a | 6.868*** |
| | 투자관리행동 (평균 2.84) | 3.01 b | 2.86 a | 2.77 a | 2.72 a | 6.223*** |
| | 부채관리행동 (평균 3.64) | 3.65 a b | 3.70 b | 3.51 a | 3.70 b | 2.542* |
| | 위험관리행동 (평균 3.64) | 3.77 b | 3.66 b | 3.42 a | 3.70 b | 8.853*** |

유의수준 *p<.05, ***p<.001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무불안이 금융소비자 전반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을 개인의 능력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검증하고, 금융소비자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화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재무불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재무불안의 개념을 확장하고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하위 차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후,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 수준을 진단하였다. 이후 금융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재무 지식, 재무 자원, 심리적 요인이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 별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재무 행동 설명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재무불안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재무불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탐색과 재무불안에 대한 대처나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무불안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절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무불안은 다양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재무불안을 살펴볼 때 금융소비자가 처한 환경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재무불안을 개인의 재무관리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연구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 재무불안은 개인의 재무자원적 측면과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적 측면으로 구성되

는 다차원의 개념임이 밝혀졌다.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의 재무관리행동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바, 이는 더 이상 병리적 행동을 나타내는 일부 금융소비자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다(APA, 2020). 또한 금리 변화, 물가 상승률, 실업률, 정책 변화 등은 소비자의 재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McCommick, 2009; Garner, 2002; 김영준, 신석하, 2016).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처해있는 거시적인 맥락 역시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무불안의 개념을 확장하고 하위 차원을 도출 후 재무불안에 대한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재무불안은 재무자원 불안, 부채 불안, 거시 환경변화 불안, 개인 상황변화 불안의 4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가 지닌 재무자원의 차원과 개인이 처한 환경의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의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재무불안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무불안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때 금융소비자의 환경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금융소비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태도, 비교 성향 등의 심리적 요인이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검증되었다.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 재무지식, 재무자원, 심리적 요인을 차례로 모형에 적용한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무불안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재무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교 성향은 재무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otter et al.(2020)의 연구에서 타인과의 비교성향,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등의 심리적 요인이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재무불안이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재무불안은 재무관리 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

적 요인이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과도한 재무불안 완화를 위한 교육이나 대처 방안  개발 및 실행 시, 심리적 요인의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을 분류한 결과 각 집단에 따라 재무불안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을 위해서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재무불안에 따라 금융소비자 유형을 분류한 결과 저불안집단, 평균 불안집단, 소득자산 불안집단, 고불안집단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저불안집단은 30대, 전문직, 대학원 이상 졸업자, 대출 상품을 제외한 다양한 금융상품 보유, 높은 월소득수준, 응답자들의 평균 이하 수준의 부채 규모,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낮은 비교성향, 높은 상향 비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평균 불안집단은 40대, 사무관리직, 상용직, 기혼 및 동거 상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해있고, 보유한 금유상품수가 가장 많으며, 높은 소득 수준, 높은 부채 규모 등의 특징을 지닌 집단이다. 소득자산 불안집단은 20대, 미취업, 임시/일용직, 미혼, 월세거주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분포가 높고, 대출상품 보유 비중이 적으며, 월소득 수준과 부채 규모 모두 낮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미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으며, 타인과의 비교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고불안집단은 자영업 및 고용주, 보험 및 연금상품 보유 비중이 낮고 대출상품 보유비중이 높다. 이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반면, 부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보통 수준 이하이며, 주변과의 비교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은 인구통계학적인 기준으로 금융소비자를 분류했을 때와는 다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구분하였을 때 소득이 높은 집단은 가용자원의 규모에 따라 문제가 없는 집단으로 분류되기 쉽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평균 수준 불안 집단과 저불안 집단은 모두 소득이 높은 집단이다. 하지만 이들의 금융상품 보유 여부나 보유한 신용 부채 규모, 심리적 요인을 보면 이들의 불안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자 문제를 경험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집단별 재무불안의 수준이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재무불안으로 인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각 집단 유형에 적합한 재무불안 관리 방법이나 재무문제 해결 방법 제시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지닌 재무 자원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개인의 주관적인 요인이라면, 재무자원은 객관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 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의 월소득수준, 신용 부채 규모, 금융상품 보유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불안집단은 월소득수준이 높고 부채규모가 작았으며, 부채불안 수준이 1점대로 특히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집단은 소득 수준도 낮게 나타나고, 위험관리나 은퇴와 관련한 상품 보유 비중이 낮았다. 이러한 경우 이 집단은 월소득으로 재무 자원을 축적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없이 현재의 소비지출에만 집중해야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고불안집단은 소득수준은 낮지만 부채 규모가 크고, 은퇴나 보험상품 보유 비중이 적고 대출상품 특히 담보 대출 외 대출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가용한 재무자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대출이나 생활비 등에 지출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 집단이 지닌 재무자원은 각 집단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재무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재무불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지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재무자원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소비자의 재무불안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부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무설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소득자산 불안 집단은 소득 수준도 낮고, 부채 수준도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 집단은 주 연령대가 20대이고, 미취업자의 비중도 높았다.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집단의 금

융소비자들은 금융시장에서의 부채 접근성이 낮은 부채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경우 소득자산 불안집단은 월소득으로 재무 자원을 축적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없이 현재의 소비지출에만 집중해야 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이 집단의 재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 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인적,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벗어나는 부채는 재무적 불안의 요인이지만, 부채 보유를 통해 전 생애를 걸쳐 개인의 재무자원 배분을 통해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시키고, 부채를 재무 자원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무설계 및 재무관리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여섯째,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반응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불안의 적정 수준 조절이 중요하다. 재무치료와 재무설계의 측면에서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집단 간 재무관리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무관리행동 하위 차원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부채관리 행동이나 위험관리행동의 경우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재무관리 행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무불안의 하위차원과 금융소비자들의 심리적 요인 및 재무 자원의 수준에 따라서 각자 느끼는 불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반응이며, 각 금융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재무불안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이나 재무불안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제 2 절 제언

이상에서 논의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재무불안을 더욱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불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재무이벤트의 유사성을 이유로 20대 중반부터 40대까지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그러나 재무불안의 현황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가 모두 유사한 생애주기단계로 각 집단 별 구성이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은퇴에 관련한 재무불안 항목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대가 은퇴보다는 다양한 재무이벤트를 대비한 자산 축적 등에 재무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불안 조사와 각 연령대 별 재무불안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경기 변동을 고려하여 재무불안 수준이 지속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재무불안의 하위 차원 중에서도 부채에 대한 불안이 독립적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현재의 금리 상승,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과 투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거시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은 경기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나 하강기, 경기 활성화 시기, 정책 변화의 시기 등에 따라 재무불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따라 문제를 경험하는 집단도 변화될 수 있다. 재무적 취약 집단의 변화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므로 경기 변동을 고려한 재무불안 수준 측정 및 금융소비자 유형화 등의 연구는 정책적인 함의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시기 별로 금융소비자들의 재무불안을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재무불안 수준 측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무불안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를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무불안과 재무관리행동의 발생 시점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이들 간의 선후

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불안 유형 별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는 재무불안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알 수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무불안이 높으면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낮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재무불안의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재무불안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무관리행동은 재무불안의 결과이자, 재무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 행동이다. 따라서 재무불안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재무불안과 재무관리행동의 발생 시점을 구분하여 이들 간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재무자원 활용 및 재무관리행동에서의 재무불안의 역할을 더욱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무자원으로써 부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부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무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소득자원 불안 집단의 경우 불안 수준은 소득 불안정성, 직업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에 대한 높은 불안 수준이 눈에 띄었다. 특히 이 집단은 미취업자와 20대 중후반의 구성이 높았다. 이들의 재무관리행동은 전반적인 수준이 낮았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벗어나는 부채는 재무적 불안의 요인이지만, 부채 보유를 통해 전 생애를 걸쳐 개인의 재무자원 배분을 통해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채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의 경우 정책 등을 통해 부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채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부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통해 적절한 부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재무설계 및 재무관리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과도한 재무불안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심리적 요인이 재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재무불안을 감소시켰고, 타인과의 비교 경향성은 재무불안을 증가시켰다. 과도한 재무불안은 금융소비자의 정신이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무불안 수

준 조절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무설계나 재무관리 교육, 혹은 프로그램 구성 시 금융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과도한 재무불안 수준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대처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고효진, 최지욱, & 이흥표. (2006). Templer 죽음불안 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15-328.

공병혜. (2014). 불안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현대사회의 소외. 의철학연구, 17, 63-86.

구혜경, 나종연, 김효정, 이진명, 이해랑, & 이화옥. (2013).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유형 분석. 소비자학연구, 24(4), 99-124.

김경자. (2003).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 33-50.

김길홍, & 유현정. (2016).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소비자불안과 소비자역량 척도개발. Crisisonomy, 12(2), 109-128.

김길홍, 유현정, & 송유진. (2017). 정보제공원별 소비자의 신뢰-불안-역량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생활화학가정용품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3(3), 141-158.

김나래, & 이기학. (2015). 대학생의 인정욕구, 사회적 지지, 사회불안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4), 245-264.

김명수. (2022).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택투자 붐과 청년들의 '패닉 바잉' 행동.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75, 1-11.

김미린, & 홍은실. (2010).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8(5), 113-129.

김성민, 길재욱, & 김헌수. (1999). 생활재무관리. 서울: 경문사.

김영대. (2017). [Focus] 가상화폐, 혁신인가 도박인가. 마이더스, 2017(10), 90-91.

김영준, & 신석하. (2016). 우리나라 소비자 특성별 체감경기와 거시경제지표 간의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1), 474-482.

김은실. (200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2013). 금융상품유형별 거래 후 금융소비자의 인지부조화 유발요인. 소비자학연구, 24(2), 24-46.

김정희, & 박지영. (2015).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10-222.

김종권. (2010). 경기변동과 주택형태별 수익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기업경영연구, 17(1), 125-141.

김효정, & 김미라. (2009). 소비자의 식품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도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탐색 행동.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9(1), 116-129.

노태석. (20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소비자문제연구, 44(1), 105-131.

류건식, 장동식(2009)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o해약 분석,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09-10, 2009. 8.

류지현, & 이아라. (2019).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취업불안의 관계: 자기몰입과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3), 423-441.

박수애, & 송관재. (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2), 1-29.

백은영. (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저축성향 분석. 소비자학연구, 20(2), 1-25.

보건복지부(2021)「2021 자살예방백서」, 2021.7

사지연, & 여정성. (2014). 소비자불안의 수준과 영향요인: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 광우병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5(1), 145-172.

서은희, & 김정남. (2018). 대학생의 사회비교성향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19(2), 167-188.

석병훈. (2022). 가계대출 규제하의 금리 인상 효과 분석. 한국경제포럼, 15(1), 35-59.

성은모, 백혜정, &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Ⅰ: IEA ICCS 2016-기초통계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82.

성태제. (2007). SPSS. AMOS 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손창선. (2016). 키르케고르의 자유의 가능성으로서의 불안과 사이코드라

마의 우주적 불안-철학적·사이코드라마적 재조명을 통한 불안의 역설. 철학사상문화, 22, 28-59.

양윤란, 양재원, & 오경자. (2008).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간의 시간적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1), 35-50.

오지민, & 김태민. (2021). 유튜브 주식방송 시청이 20 대 투자자의 주식투자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플루언서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121-134.

유연주, & 여정성.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상황 속 마스크 관련 소비자불안.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6(4), 127-153.

유태순. (1995). 기성복 소비자의 구매불안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의류학회지, 19(2), 216-229.

유현선. (2021). 비트코인 투자행위에 대한 인지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1(3), 27-50.

유현정, & 주소현. (2012).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 및 역량척도 개발 연구. 소비자학연구, 23(4), 79-104.

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 성영애. (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서울: 학현사.

이동준, & 한창근. (2021).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신용대출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771-789.

이승신. (2016). 식품위해 인식과 식품불안감이 식품안전관리제도평가에 미치는 영향: 식품안전정보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1), 69-81.

이시은. (2017). 노인의 삶의 의미 측정 도구 개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1).

이연숙, 양세정, & 주인숙. (2000). 가계재무관리의 이해. 서울: 신정.

이주현, & 이순묵. (2002). 시험불안과 동기. 교육심리연구, 16(3), 181-196.

임경림. (2018). 성찰역량 척도 개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상빈. (2022). '영끌'한 2030 세대와 주택가격 하락기 정책적 대안. TIP (TAX ISSUE PAPER), 76, 1-11.

장연주. (2013).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과 유형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상민. (2014). 식품 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친환경상품 구매와 식품 소비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소득의 조절효과. 소비자문제연구, 45(2), 77-96.

전상민. (2018). 소비자의 안전상향 지불의도와 리콜기업 신뢰도가 리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역량의 조절효과. 소비자문제연구, 49(3), 33-59.

정달용. (2001). 마르셀과 하이데거ㅡ불안 (不安) 의 개념 (槪念) 을 중심으로ㅡ. 가톨릭철학, 3, 50-67.

정혜경, & 여정성. (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1-14.

조윤희. (2020). 사회적 지지가 이혼을 한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1(2), 1371-1384.

최경숙, & 김지은. (2020).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식품소비자정보리터러시가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43(2), 91-116.

최영목, 최원(2008) "경제변수가 생명보험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 보험개발연구, 제19권 제3호, 2008.1

최철. (2013).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 배분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4(1), 297-325.

한남식, & 어주경. (2012). 중학생의 대인관계 성향, 또래 괴롭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생애학회지, 2(1), 71-84.

한지형. (2019). 소비자는 왜 모바일금융 환경에서 불안을 느끼는가?: 모바일금융 불안의 개념과 영향요인 탐색.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5(3), 51-73.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29-160.

홍준기. (2001). 불안과 그 대상에 관한 연구: 프로이트·라캉 정신분석학과 키에르케고르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상학과 현대철학, 17, 234-267.

황진태, 이경희(2010)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모형,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Stress in AmericaTM, paying with our heal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 cal Association.

Amoroso, D. M., & Walters, R. H. (1969). Effects of anxiety and socially mediated anxiety reduction on paired-associate lear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4), 388.

Andrews, B., & Wilding, J. M. (2004). The rel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to life-stress and achievement in stud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4), 509-521.

Anthony, J. O., Qun, G., & Sharon, L. (2004). Library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Maryland: Scarecrow Press. Retrieved from books. google. co. id on February, 3, 2014.

Archuleta, K. L., Burr, E. A., Dale, A. K., Canale, A., Danford, D., Rasure, E., & Horwitz, E. (2012). What is financial therapy? Discovering mechanisms and aspects of an emerging

field.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3(2), 57-78.

Archuleta, K. L., Dale, A., & Spann, S. M. (2013). College students and financial distress: exploring debt, financial satisfaction, and financial anxiety.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4(2), 50-62.

Archuleta, K. L., Mielitz, K. S., Jayne, D., & Le, V. (2020). Financial goal setting, financial anxiety, and solution-focused financial therapy (SFFT): A quasi-experimental outcome stud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42(1), 68-76.

Bailey, J. J., Sabbagh, M., Loiselle, C. G., Boileau, J., & McVey, L. (2010). Supporting families in the ICU: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of informational support, anxiety, and satisfaction with care.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26(2), 114-122.

Baek, E., & Hong, G. S. (2004). Effects of family life-cycle stages on consumer deb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3), 359-385.

Bauer, R. A. (1960). Consumer behavior as risk taking. In Proceedings of the 43rd Nation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Marketing Assocation, June 15, 16, 17, Chicago, Illinois, 1960.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Beg, M. A., & AS, Z. (1982).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death anxiety and religious faith to age differentials.

Bennett, D., McCarty, C., & Carter, S. (2015). The impact of financial stress on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economics courses. Academy of Educational Leadership Journal, 19(3), 25.

Bostick, S. L.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Britt, S. L., Canale, A., Fernatt, F., Stutz, K., & Tibbetts, R. (2015).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counseling: Help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6(2), 172-186.

Capelli, S. (2005). Problem-oriented anxiety and consumer behavior (No. halshs-00093561).

Cassady, J. C., & Johnson, R. E. (2002). Cognitive test anxiety and academic performanc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7(2), 270-295.

CFPB(2020) CFPB FInancial Education Exchange_Dealing with financial stress and anxiety during COVID-192020. 4

Costello, A. B., & Osborne, J.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0(1), 7.

Elliot, A. J., & McGregor, H. A. (1999). Test anxiety and the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628.

Eisenberg, D., Gollust, S. E., Golberstein, E., & Hefner, J. L. (2007).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ality among university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4), 534-542.

Esmark Jones, C. L., Stevens, J. L., Noble, S. M., & Breazeale, M. J. (2020). Panic attack: How illegitimate invasions of privacy cause consumer anxiety and dissatisfaction.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39(3), 334-352.

Fiksenbaum, L., Marjanovic, Z., & Greenglass, E. (2017). Financial threat and individuals' willingness to change financial behavior. Review of Behavioral Finance.

Fischer William, F. (1970). Theories of anxiety. Center for Advanced Research in Phenomenolog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Fonfría, A., Segarra, P., Poy, R., Esteller, À., López Penadés, R., Ribes, P., ... & Molto, J. (2015). Ansiedad y toma de decisiones en la Iowa Gambling Task.

Frewer, L. J., Shepherd, R., & Sparks, P. (1994).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knowledge, control and risk associated with a range of food-related hazards targeted at the individual, other people and society. Journal of food safety, 14(1), 19-40.

Gamer(2002) "Consumer Confidence after September 11", Economic Review 2nd Quarter

Gelashvili, V., Martínez-Navalón, J. G., & Enríquez, G. H. (2021). How stress and anxiety when using mobile restaurant reservation Apps influence users' satisfaction and trust. Journal of Indian Business Research.

Geller, D. (2013). Money Anxiety. First Edition Design Pub..

German, P. G. (1993). Compulsory detention under the Alcoholism and Drug Addiction Act 1966: an addiction to social control?.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

Grable, J., Heo, W., & Rabbani, A. (2015). Financial anxiety, physiological arousal, and planning intention.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5(2).

Guo, X., Sun, Y., Wang, N., Peng, Z., & Yan, Z. (2013). The dark

side of elderly acceptance of preventive mobile health services in China. Electronic Markets, 23(1), 49-61.

Hansen, T., Mukherjee, A., & Thomsen, T. U. (2011). Anxiety and search during food choice: the moderating role of attitude towards nutritional claim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Harding, J. (2011). Financial circumstances, financial difficulties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first-year undergraduates.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35(4), 483-499.

Hasler, A., Lusardi, A., & Valdes, O. (2021). Financial Anxiety and Stress among US Households: New Evidence from the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udy and Focus Groups. FINRA Investor Education Foundation.

Heckman, S., Lim, H., & Montalto, C. (2014).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5(1).

Heo, W., Cho, S. H., & Lee, P. (2020). APR Financial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11(1), 2.

Hodapp, V., & Benson, J. (1997). The multidimensionality of test anxiety: A test of different models. Anxiety, stress, and coping, 10(3), 219-244.

Hogan, J. J., & Berning, J. P. (2012).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food purchases among food insecure households (No. 323-2016-11385).

Igbaria, M., & Parasuraman, S. (1989). A path analytic study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computer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microcomputers. Journal of Management, 15(3), 373-388.

Jenkins, S. R., Belanger, A., Connally, M. L., Boals, A., & Durón, K. M. (2013). First-generation undergraduate students'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6(2), 129-142.

Jiao, Q. G., & Onwuegbuzie, A. J. (1998). Perfectionism and library anxiety among 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4(5), 365-371

Jones, S. M., & Heffner, J. L. (2022). Financial anxiety: a potential new target to increase smoking cessation. Future Oncology, 18(9), 1035-1038.

Joo, S. H., Durband, D. B., & Grable, J. (2008). The academic impact of financial stress 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10(3), 287-305.

Kadoya, Y., Khan, M. S. R., Hamada, T., & Dominguez, A. (2018). Financial literacy and anxiety about life in old age: Evidence from the USA.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6(3), 859-878.

Karasu, T. B. (1985). Idea of death. Integrative Psychiatry, 3(4), 280-283.

Kempson, E., Finney, A., & Poppe, C. (2017). Financial Well-Being.

Kim(2010) Policyholder Surrender Behaviors under Extreme Financial Conditions",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ISSN: 1225-066X), 23(4), 2010, pp. 635-650.

Klontz, B., Britt, S. L., & Mentzer, J. (2011). Money beliefs and financial behaviors: Development of the Klontz Money Script Inventory.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2(1), 1-22.

Klontz, B., & Klontz. T.(2009). Mind over money: Overcoming the Money Disorders That Threaten Our Financial Health. New York: Broadway Business.

Lemyre, L., & Smith, P. M. (1985). Intergroup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660.

Lim, H., Heckman, S., Montalto, C. P., & Letkiewicz, J. (2014). Financial stress, self-efficacy, and financial help-see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5(2), 148-160.

Lim, V. K., & Teo, T. S. (1997). Sex, money and financial hardship: An empirical study of attitudes towards money

among undergraduates in Singapor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4), 369-386.

Lonetto, R., Fleming, S., & Mercer, G. W. (1979). The structure of death anxiety: A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3(4), 388-392.

Lovibond, P. F., & Lovibond, S. H. (1995). The structure of negative emotional states: Comparis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 with the Beck Depression and Anxiety Inventor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3), 335-343.

Marjanovic, Z., Greenglass, E. R., Fiksenbaum, L., & Bell, C. M. (2013).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Financial Threat Scale (FTS) in the context of the great recess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6, 1-10.

McCormick, M. H. (2009). The effectiveness of youth financial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0(1)

Medyanik, O. (2021). Financial Anxiety as a Factor in Insurance Behavior. In IV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Practical Conference (pp. 1-7).

Medyanik, O. (2020). Research of financial anxiety on the example of insurance behavior of Russian citizens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2019-nCoV.

Meuter, M. L., Ostrom, A. L., Bitner, M. J., & Roundtree, R. (2003). The influence of technology anxiety on consumer use and experiences with self-service technologi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6(11), 899-906.

Northern, J. J., O'Brien, W. H., & Goetz, P. W. (2010). The development,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a financial stress scale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1(1), 79-92.

O'Neill, B., Prawitz, A., Sorhaindo, B., Kim, J., & Garman, E. T. (2006). Changes in health, negative financial events, and financial distress/financial well-being for debt management program client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7(2).

Parrotta, J. L., & Johnson, P. J. (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

Pew Research Center(2021. 11)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 from 17 advanced economies

Potter, D., Jayne, D., & Britt, S. (2020). Finan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generational statu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Roll, S. P., Taylor, S. H., & Grinstein-Weiss, M. (2016). Financial anxiety in Low-and Moderate-Income Households: Findings from the household financial survey.

Sages, R., Britt, S., & Cumbie, J. (2013). Th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money management. College Student Journal, 47(1), 1-11.

Sachin, B. S., Ramesh, B., Saravana, K., & Rajashekar, C. (2021). Financial Anxiety and Resilience among Rural Poor: An Exploration of Social Work Im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Economic Review, 3(3), 28-34.

Saggino, A., & Kline, P. (1996). Item factor analysis of the Italian version of the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2(3), 329-333.

Sah, A., Schmuckermair, C., Sartori, S. B., Gaburro, S., Kandasamy, M., Irschick, R., ... & Singewald, N. (2012). Anxiety-rather than depression-like behavior is associated with adult neurogenesis in a female mouse model of higher trait anxiety-and comorbid depression-like behavior. Translational psychiatry, 2(10), e171-e171.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

Scott, C. R., & Rockwell, S. C. (1997). The effect of

communication, writing, and technology apprehension on likelihood to use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mmunication education, 46(1), 44-62.

Sego, T., & Stout, P. A. (1994). Anxiety associated with social issues: Th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an antecedent construct. ACR North American Advances.

Selye, H. (1976). The stress concept.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15(8), 718.

Shapiro, G. K., & Burchell, B. J. (2012). Measuring financial anxiety. Journal of Neuroscience, Psychology, and Economics, 5(2), 92.

Shiller, R. J. (1996). Price-earnings ratios as forecasters of returns: The stock market outlook in 1996. Unpublished manuscript, Yale University

Spielberger, C. D. (1972). Needed Research on Stress and Anxiety. A Special Report of the USOE-Sponsored Grant Study: Critical Appraisal of Research in the Personality-Emotions-Motivation Domain. IBR Report No. 72-10.

Sullivan, H. S. (201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Routledge.

Taylor, J. W. (1974). The role of risk in consumer behavior: A

comprehensive and operational theory of risk taking in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38(2), 54-60.

Twenge, J. M. (2000). The age of anxiety? The birth cohort change in anxiety and neuroticism, 1952-199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1007.

Voydanoff, P.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99-1115.

Vosylis, R., & Erentaitė, R. (2020). Linking family financial socialization with its proximal and distal outcomes: Which socialization dimensions matter most for emerging adults' financial identity, financial behaviors, and financial anxiety?. Emerging Adulthood, 8(6), 464-475.

Wang, H. H., Zhang, X., Ortega, D. L., & Widmar, N. J. O. (2013). Information on food safety, consumer preference and behavior: The case of seafood in the US. Food control, 33(1), 293-300.

Widaman, K. F. (1993). Common factor analysis versu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Differential bias in representing model paramete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8(3), 263-311.

Yang, K., & Forney, J. C. (2013). The moderating role of consumer technology anxiety in mobile shopping adoption: differential effects of facilitating conditions and social

influences.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4(4), 334.

Yu, Y., Rha, J. Y., Yeo, J. S., Ko, E., & Kim, S. Y. (2019). 금융상품별 불공정한 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불안-재무지식과 주관적 소비자역량의 영향을 중심으로 (Consumers' Anxiety about Financial Transactions). Financial Planning Review, 12(4).

Xiao, J. J. (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21.

Zaimah, R., Masud, J., Haron, S. A., Othman, M., & Sarmila, M. D. (2013).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ratio analysis of married public sector workers in Malaysia. Asian Social Science, 9(14), 1.

##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불안과 불안이 금융소비자의 재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따로 있지 않으니, 귀하의 평소 생각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정보유통 연구실
(문의) 박사과정 이해랑 haerang2@snu.ac.kr

응답자 금융상품 보유 상태 (응답자 선정 질문 )

1. 다음 중 금융상품에 대하여 귀하의 보유 여부를 응답해주십시오.

| | 금융상품 | Yes | No | 예시 |
|---|---|---|---|---|
| 1 | 예적금 | | | 정기적금 정기 예금 |
| 2 | 직접투자 | | | 주식투자 |
| 3 | 간접투자 | | | 적립식 펀드 등 |
| 4 | 보장성 보험 | | | 실손보험, 생명보험 등 |
| 5 | 저축성 보험 | | | 변액보험, 저축보험 등 |
| 6 | 연금상품 | | |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 상품으로 연금펀드, 연금보험, IRA 등 |
| 7 | 담보대출 | | | 주택,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 |
| 8 | 그 외 대출 | | |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
| 9 | 기타 투자 상품 | | | 가상화폐 등 |

| 인구통계학적 요인 |
|---|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여성 ②남성

3. 귀하의 출생년도를 적어주세요. _____년 (응답자 선정 질문)

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② 광역시 및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③ 시 단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중소도시)
④ 군 단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군)

5. 귀하께서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전문직(▶5-1) ②사무/관리직(▶5-1)
③서비스/판매직(▶5-1) ④미취업

5-1 귀하의 근로 유형은 다음 주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상용직 ②임시직 ③일용직 ④자영업 및 고용주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자영업 및 고용주**: 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농림수산업, 행상 및 노점상 등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경우

6.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미혼 ②기혼 및 동거 ③이혼 및 사별

7. 귀하의 가구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8. 귀하의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0명으로 기재)

9.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소유자 또는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①본인 ②부모님 ③부모님 외 가족 ④가족이 아닌 타인 ⑤기타

9-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거주형태는 무엇입니까?

①자가 ②전세 ③월세 ④기타

10.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중학교 졸업 ②고등학교 졸업 ③전문대학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졸업 이상

| 재무불안 |
|---|

11. 지난 6개월 동안 귀하의 재무상황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사항에 의해 귀하가 불안을 느꼈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구분 | | |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 | | 매우 불안했다 | |
|---|---|---|---|---|---|---|---|
| | | | 1 | 2 | 3 | 4 | 5 |
| 재무 자원 수준 불안 | 1 | 나의 총 소득 수준 | | | | | |
| | 2 | 나의 총 자산 수준 | | | | | |
| | 3 | 나의 총 저축 수준 | | | | | |
| | 4 | 나의 총 부채 수준 | | | | | |
| 개인 상황 변화 불안 | 5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건강 악화 | | | | | |
| | 6 | 실직 | | | | | |
| | 7 |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지출 | | | | | |
| | 8 | 예정된 큰 규모의 지출(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자금, 학자금 등) | | | | | |
| | 9 |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 | | | | | |
| 소비 지출 행동 불안 | 10 | 현재 생활비 수준 | | | | | |
| | 11 | 카드 비용, 공과금 등의 지출 납부 | | | | | |
| | 12 | 자동차, 가전제품 등 새로운 제품에 대한 큰 규모의 지출 | | | | | |
| | 13 | 부채에 대한 이자 납부 | | | | | |
| 거시 환경 변화 불안 | 14 | 실업률 | | | | | |
| | 15 | 팬데믹(코로나19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 | | | | |
| | 16 | 금리변동 | | | | | |
| | 17 | 세금이나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 | | | | | |
| | 18 | 물가변동 | | | | | |

심리적 요인

12. 아래 문장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모습에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매우 그렇다 |
|---|---|---|---|---|---|---|
| | | 1 | 2 | 3 | 4 | 5 |
| 1 | 나는 미래에 대하여 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2 | 나는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3 |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과 나의 재무 상황을 자주 비교하는 편이다 | | | | | |
| 4 |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 비해 나의 재무 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5 | 나는 나의 재무 상황 및 금융의사결정과 관련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 | | | | |
| 6 | 나의 금융과 관련한 지식 및 이해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 | | | | |

재무적 요인

13.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금을 공제한 후 실질 소득을 적어주세요)

----------만원

14.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용 대출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포함)

----------만원

| 금융지식 |
|---|

15.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정답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니,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일 경우 '모른다'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 객관적 재무지식 | 그렇다 | 아니다 | 모른다 |
|---|---|---|---|---|
| 1 | 가구주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재무목표가 달라지면 재무설계안 또한 달라진다 | | | |
| 2 |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전과 동일 제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든다 | | | |
| 3 | 100원을 연이율 2%(복리)의 비과세 저축성 예금에 5년 동안 저축해 둔다면, 5년 후에 동 계좌에는 110만원이 있을 것이다 | | | |
| 4 | 은퇴기 소득원은 예상되는 각종 연금과 저축액 및 부동산 수익 등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 | | |
| 5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대한도는 금융기관 당 3,000만원이다 | | | |
| 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 증권 등 금융상품업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가에게 설명의무를 가진다 | | | |
| 7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 | | |
| 8 | 여러 회사의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대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각 회사별로 가입한 보험금액에 비례하여 보상 받는다. | | | |

| 재무 관리 행동 |
|---|

16. 다음 문장을 읽고, 귀하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구분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매우 그렇다 |
|---|---|---|---|---|---|---|---|
| | | | 1 | 2 | 3 | 4 | 5 |
| 지출 관리 행동 | 1 | 효율적인 지출관리(생필품 가격 변동 여부, 할인 정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다 | | | | | |
| | 2 | 소득을 꼭 지불해야 하는 부분(저축, 세금, 관리비 등)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으로 식비, 피복비, 교양 오락비 등에 사용한다 | | | | | |
| | 3 | 가계의 지출 비목을 구분하여 지출 내용과 지출 금액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 | | | | |
| | 4 | 두 세달에 한번씩 지출 예산을 평가하고 분석한다 | | | | | |
| | 5 | 수립한 지출 계획을 잘 지킨다 | | | | | |
| 투자 관리 행동 | 6 | 나의 투자 목표와 현재 재무 상황에 적절한 투자방법(저축, 펀드, 직접투자, 부동산 등) 및 투자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 | | | |
| | 7 | 생활비 지출 전에 투자 금액을 미리 예산에 포함시킨다 | | | | | |
| | 8 | 금리 상승 시에는 단기금융상품(1년 이하)이나 변동 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며, 금리 하락 시에는 장기금융상품(2년 이상)이나 확정 금리형 상품에 투자한다 | | | | | |
| | 9 | 선택한 투자 방법이 투자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최소 6개월 단위로 평가한다 | | | | | |
| 부채 관리 행동 | 10 |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 매월 이자 및 상환 금액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 자주 확인한다 | | | | | |
| | 11 | 대출이 필요할 경우(주택구입, 학자금 대출, 자동차 구입 등)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확인한다 | | | | | |
| | 12 |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부채상환 결과를 평가해본다 | | | | | |

| | | | | | | | |
|---|---|---|---|---|---|---|---|
| 위험 관리 행동 | 13 | 생명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또는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였다(가입되어 있다) | | | | | |
| | 14 |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 |
| | 15 | 현재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의 규모가 나의 위험 대비책으로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 | |
| | 16 | 현재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의 규모가 현재 나의 소득 및 자산 대비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 | |

Abstract

# A Study on Consumers' Financial Anxiety

Lee Haerang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consumers continue to experience anxiety in terms of the rapidly changing complexity of financial products, and the expansion of consumer access to financial products. Increased uncertainty due to globalization, the size, and integ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digitalization of financial products has increased the anxiety of financial consumers. In addition, while financial advancement in the early 2000s increased consumers' access to high-risk/high-return and complex financial products, it also increased financial consumers' anxiety about loss after choosing a produc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var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excessive financial anxiety of financial consumers affects their quality of life, work and academic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ealth of financial behavior as well as their physical health. In particular, researches show that credit loans,

student loans, mortgages, and income instability are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us increasing interest in the financial anxiety of financial consumers.

If consumer anxiety is related to the purchasing decisions of general goods or services, financial anxiety continues even after a purchase has been made. Finance-related decision making also has persistent effects on the entire distribution of individual financial resources. Since financial consumers want to allocate their financial resources to maximize lifetime utility, uncertainty about them affects their allocation behavior.

In Korea, due to the changes in real estate policy and the booming stock market over the past few years, phenomena such as purchasing a house or raising investment funds through loans have occurred. The background to these speculative investment behaviors includes increased unemploymen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stability, uncertain prospects for the future, negative perceptions of wealth inequality and social disparities, and anxiety caused by all the aforementioned.

As mentioned above, financial anxiety is a key factor that explains the financial behavior of financial consumers, and is more likely to increase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financial behavior of financial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study financial anxiety.

Previous studies on financial anxiety have focused the individual's ability or will rather than its pathod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However, anxiety is not a simple concept such a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Anxiety is an individual's subjective, cognitive, psychological, and physical

response to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r events. It is also universal, general, and acts as a constructive factor that enables preparation for danger. From this point of view, current concept of financial anxiety would not comprehensively explain financial anxiety that financial consumers experience.

Under the financial environment with increasing uncertainty, to specifically inspect the financial behaviors of financial consumers, a research on the financial anxiety should be conducted. In addition, in order to accurately examine the financial anxiety experienced by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take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financial anxiety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sumers upon it.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amine the financial anxiety of consumers in a multidimensional way from the perspective that financial anxiety is a general experience of financial consumers, 2) to examine the level of financial anxiety of consumers, 3)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financial anxiety, and 4) to examine in detail the aspects of financial anxiety experienced by consumer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study expands the concept of financial anxiety and identified sub-dimensions through reviewing previous studies. Afterwards, in order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sumers according to the financial anxiety type,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054 financial consumers who own financial products, and the survey data was analyzed with 1) factor analysis to identify the of sub-dimention of financial anxiety,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to diagnose the level of financial anxiety of consumers,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factors influencing

financial anxiety, 4) cluster analysis to categorize financial consumers with different financial anxiety, and 5) Chi-square test and ANOVA of varianc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sumers according to the financial anxiety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its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financial anxiety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composed of various sub-dimensions, and when examining financial anxiety, the aspects of the financial consumers'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Previous studies view financial anxiety as a single-dimensional concept focused on individuals'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financial anxiety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composed of an individual's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individual is located. Financial anxiety was classified into four sub-dimensions: 1) financial resource anxiety, 2) debt anxiety, 3) macro-environmental change anxiety, and 4) individual environmental change anxiety. Financial anxiety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composed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consumers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 Therefore, in order to accurately examine the financial anxiety of consumer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financial anxiety is required, and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financial consumers must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factors affecting financial anxiety and differences among groups of financial consumers, it was verified that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ttitudes toward the future and comparative propensity of financial consumers are important aspects influencing financial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on financial anxiety. Respondents'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future had a negative effect on financial anxiety, and comparative propensity had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anxiety. Financial anxiety is a subjective factor that one feels, and it can be seen that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factors is important. Excessive financial anxiet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soundness of financial management. In this res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revealed that psychological factors are the main elements influencing financial anxiety, suggests the need for an approach that considers psychological factors when presenting education or countermeasures to alleviate excessive financial anxiety.

Third,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types of financial consumers according to financial anxiety, the aspects of financial anxiety turned out to be different for each gro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sumers in order to accurately identify and analyze them. As a result of classifying financial consumer types according to financial anxiety, the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the low anxiety group, average anxiety group, income assets anxiety group, and high anxiety group. Classification of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sumers can find problems different from the classification of financial consumers based on demographics. For this reason, each person's financial anxiety appears differently. It implies that an approach to classify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sumers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find out the problems caused by financial anxiety experienced by financial consumers and to suitable financial anxiety management methods or financial

problem solving methods.

Fourth,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financial resources on financial consumers in order to examine various problems experienced by financial consumers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anxiety. If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financial anxiety are subjective, financial resources can be used to objectively analyze problems. In fac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according to the types of financial consumers,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the level of monthly income, the size of credit debt, and whether or not they owned financial produ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n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resources of financial consumers in order to accurately diagnose the problems that financial consumers have in relation to financial anxiety and to present objective solutions.

Fifth, as a result of examining differences by the types of financial anxiety of financial consumers, the necessity of forming a proper attitude toward the debt for the financial consumers was revealed. The income-asset anxiety group is characterized by low-income levels and low debt levels. This group is likely to be a vulnerable group with low access to debt in the financial market and is not qualified to hold debt. Furthermore, they cannot focus on current consumption and are unable to accumulate financial resources with their monthly income or prepare for future uncertainties. Debt that exceeds one's income level is a factor of financial anxiety, but through holding debt, individuals can achieve their financial goal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throughout their liv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aise the need for financial

planning and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or policies that can help people to form a proper attitude toward debt and appropriately utilize debt as a financial resource.

Sixth, financial anxiety is a psychological response experienced by financial consumers, and it is important to adjust its leve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sumers. In terms of financial therapy and financial planning, financial anxiety was found to be a factor that negatively affect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consumers. However,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sumer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financial anxiety. As a result of examining differenc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mong groups of financial consumers according to financial anxie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dimension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level of financial anxiety has a negative effect o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However, in the case of debt management behavior or risk management behavior, the level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a high anxiety level. This is a result of the fact that each person's anxiet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sub-dimension of financial anxiety, psychological factors of financial consumers, and the level of financial resources. Therefore, financial anxiety is a psychological response generally felt by financial consumers,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or measures to cope with 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nancial consumer so that the level does not increase excessive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each financial consumer faces.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in order to take a more comprehensive look at the various financial anxiety experienced by financial consumers, research on financial anxiety targeting all age groups is needed. Second,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measure the level of financial anxiety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fluctuations. Third, in order to accurate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anxiet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t is necessary to elaborately distinguish the timing of occurrence of financial anxiet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ourth, education or policy support is needed to properly utilize debt as a financial resource and form a proper attitude toward debt. Fif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ducation and programs that can control excessive financial anxie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looked at financial anxiety in a multi-dimentional way, which has been treated as a single-dimensional concept and a pathological phenomenon before, in terms of consumers'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However, through this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financial anxiety is not that simplistic. It is a complex phenomenon experienced by financial consumers that can be explored by tak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h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ypologize financial consumers according to financial anxiety, to derive problems for each type of financial anxiety, and to provide a basis for coping with or diagnosing them.

**keywords : Financial Anxiety, Financial Consumer, Consumer typology, Attitude towards the future, Comparison propensity**
***Student Number*** : 2013-30487